NOV 2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657 1981년10월29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hursday, October 29, 1981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식 자 부 장 : 박 부 용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미라클, 도미니언, 로브로등 수퍼마켓
가격인하 경쟁 돌입
2천5백개 품목 평균18% 선 내려

미라클·마트(Miracle Mart)를 비롯한 온타리오주내 수퍼마켓 체인들이 심각한 가격인하 경쟁에 돌입했다.

28일부터 미라클 체인은 육류, 달걀, 냉동식품, 설탕등 2,500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18% 인하했다.

미라클회사 노만·오스랜드 수석 부사장은 27일"우리의 가격인하 정책은 장기간 계속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로블로, 도미니언, 캐나다 세이프·웨이등 대 수퍼마켓 체인들도 미라클에 대항, 가격인하 경쟁에 뛰어들었다. 로블로 관계자는"이번 가격인하는 전면적이 아니며 2주내에 정상화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캐나다 세이프웨이 노만·휭글러 부사장은 "식료품 판매회사들은 가격을 내릴만한 여유가 없다. 식료품은 필수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낮다고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 이번에도 식품가격은 곧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다"고 내다 보았다.

로블로의 데빗·니콜사장은"우리의 정책은 언제든지 경쟁자의 가격을 따라잡는것이다. 그러나 이번 가격전쟁은 단기간 뜨겁고 강하게 나올것이다"고 내다봤다.

이에대해 도미니언은 28일자 광고에서 도미니언의 가격이 다른식품 체인보다 비싸면 비싼금액의 3배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 고선전했다. 단 20달러어치 이상의 구입자에 한한다.

미라클측은 광고 관리를 기계화, 경비를 줄여 가격인하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창고관리 방법으로 연간 200만달러 이상의 경비가 준다고 그들은 덧붙였다.

대부분의 교포들은 한국장외에 캐네디안장도 함께 보고 있다.

재봉사 취업이민 일단재개
35명 추가로, 장기전망은 불투명

위니펙봉제협회와 한인재봉사들의 불협화음으로 일시중단됐던 취업이민이 재개됐다.

이번 위니펙봉재 사들의 악차 마니토바봉제협회 간부진들과 대화를 나누었던 위니펙한인회장 김원겸 박사는 "이번 10월에 오기로 됐던 35명의 재봉사들은 예정대로 올 수 있게됐다. 그러나 재봉사들의 추가이민문제는 이곳 봉제협회, 캐나다정부와 한국정부관계자들의 문제로 확실한 전망은 알 수 없다" 고 27일 본사와의 전화에서 말했다.

봉재협회측이 제기한 한국재봉사들의 이탈문제로 10월로 예정됐던 한국재봉사 35명의 이민이 일시중단됐었다.

그러나 위니펙 한인회는 이사실을 중시, 협회측과계속대화, 재봉사들의 이탈문제만 아니라, 일부공장주들의 혹사문제도 있었다는것을 초청측인 봉제협회에 알려, 수속을 완료, 대기중인 35명의 재봉사들은 곧 도착할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번에 봉제공들의 실태파악차 직접 공장을 둘러보고 경영진들을 만나본 김회장은 "재봉사들 이탈문제도 있으나 경영주들의 노동착취문제도 제기됐다" 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토론토총영사 관은 이상훈 총영사와 조홍래영사를 위니펙에 파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현지에서 총영사와 같이 공장주, 재봉사, 한인회관계자들을 만난 조영사는"재봉사들 자체의. 이탈문제등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캐나다에 한국인의 좋은 이미지를 심기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정부도 위니펙의 재봉사이민을 중시, 관계자들과 계속 협상중이다.

가정의 벗
한국일보

트루도수상 방한수행 100시간 ②
「풀」기자 득표공작
태권도시범도 내락받아

▲9월26일

아침에 일어나보니 벌써 주위에는 6인치정도의 흰눈이 덮였으나 기온은 예상보다 춥지않다.

아침8시30분 앵커리지를 출발, 기내에서 아침식사를 마친후 수상보좌관이 나누어준 세관신고서, 입국신고, 호텔숙박카드등을 받았다. 세관신고서 용지는(30704-32-565A)한문과 일본어로만 되어있어 내가 번역을 맡아야 했다. 한국인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칭송을 받기도 했다.

동행기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번 트루도 한국방문은「세일즈맨」 같은 인상을 풍긴다고 비난, 한국정부가 어떻게 대할것인가를 보지 않고도 알수있다고해서 나는 속으로 불안했다. 그러나 그것 보다도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34명의 기자중 10명만이 수상과계속동행, 그나머진 이들에게 정보를 얻게되며 겨우 「판문점」이나 가는 관광여행단이다.

나는 직접 수행기자단으로 선정받은후 두어차례풀기자 보증을 대사관을통해 요청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나는 모처럼 가는 고국에 관광만이라면 아무런 의의도 없을뿐 아니라 나혼자서도 갈수있기 때문이다. 꼭「풀」속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 서열은 맨 끝이나 TV, 래디오, 통신사별로 풀예정자를 알아내고, 기자단 회장, 총무, 이사들을 차례차례로 만나기내 캠패인을 벌였다. 수상비서진과 공보관에게도 내 뜻을 전달했으나 최종결정은 서울도착즉시 직접선거에 의하여 뽑는다고 한다.

벌써 나를 떨어주겠다고 말한 사람들이 26명이나되었지만 안심이 되지않았다.

잠시후 기내에서「켄·로빈슨」의원이 나를 찾아왔다. 나는 수상에게 정규 스케쥴엔 없지만 비공식으로태권도 시범을 한번 보여주었으면 하는 내 생각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 비서관들에게도 시간을 어떻게 낼 수 있는가를 시간표를 내놓고 찾아보았다. 잠시후 비서관들은 28일 6시 기자인터뷰 후가 제일적당하다고 하며 수상의 내락도 받았다고 전해왔다. 나는 뛸듯이 기뻤다.

어느새 9시간을 비행했는지 곧 김포에 착륙 한다는 기내방송이 흘러나왔다. 모두들 서울시간으로 시계를 맞추면서 25일 출발했는데 27일이 됐으니 이틀간 손해본거라고 불만들이 대단하다. 그러나 나는 많이도 달라졌다는 서울의모습, 그리운 부모형제 친우들의 얼굴이 떠오르며 설레이는 가슴을 억제할수없었다.

고국의 모습이 한눈에보이고 기체가 땅에 닿았다. 붉은 카펫이 깔리워져 있었으며, 남덕우총리를 비롯, 정부관리 의장대가 도열해서 수상을 맞아 꽃다발을 증정한 후 곧장 신라호텔로 향했다. 환영식이 너무 간단해서 뭔가 좀 허전한것 같았다.

달리는 버스의 차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약간 달라진것 같았으나옛모습 그대로를 느낄수 있었다. 지나가는 소형 자가용들이 신호등을 무시하면서 달리고, 삼륜차에 이삿짐을 산더미처럼 싣고또 그위에 두세사람이 매달려 타고가는 모습을 옆 기자가 보고 저기저사람들 위험한것 같다고 손으로 가리키면서 소리지른다·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으나 아무말 없이 차창밖만 정신없이 살폈다. 버스는 남대문, 광화문, 독립문등을 돌아서 장충단쪽으로 달리고 있으나 가끔 차가 멈출때마다 청결하지않게 보이는 대포집들이 시야에 들어온다. 나는 옆기자들이 그것을 보지않도록 필요없는 말을 지껄이고말을 걸었다. 그래도 버스가 느린것 같아서 원망스러웠다. 한참을 눈을감고 있었다. 옆에선 원더풀소리도 가끔 들린다. 중국과 일본과 거의 비슷한점이 많다고 자기네들끼리 숙덕거린다.

CBC여기자는 눈을감고 있는 나에게 피로하냐면서 내게 주소를 보이면서 「이태원동」을 이길로 가느냐고 물어본다. 그곳은 왜 찾느냐고 했더니 거기서「셀크」옷한벌을 사야겠다고한다.

거리엔「국군의날」행사대형아치와 프랑카드가 곳곳에 걸려있다.

호텔 신라에 도착했다. 정문 우측전체에 대형싸인이 걸려있었다. 「제32차WHO서태평양 지역회의」라고 굉장히 긴 싸인으로 청색바탕에 흰글자가 유난히도 돋보인다.

이태은특파원

◇서울 신라호텔에 도착한 트루도수상. 호텔앞에는 수상 환영사인은 없고「WHO(세계보건기구)서태평양회의」 간판만 걸려 있었다.

社告

이전파티에의 초대

저희 〈한국일보-토론토〉사는 지난 5월1일 사옥을 이전했읍니다만 아직 교민 여러분을 새 사옥에 모시는 기회를 마련치 못했읍니다.

이에 따라 본사는 해가 바뀌기 전에, 또 세모(歲暮)의 어수선함이 다가오기 전에 평소 좋은 말씀 주시고, 물심양면 도움주신 필자, 독자, 광고주, 선후배 제현을 잠시 모시는 기회를 마련키로 했읍니다.

분망하신 가운데라도 일차 찾아주시면 큰 영광으로 생각하겠읍니다.

때 : 1981년11월14일(토) 하오2시~하오7시
곳 : 본사 1025 DUPONT ST. TORONTO
(도버코트·로드 서쪽)
전화 : 533-2361

※개별적으로 초청장을 드리지 못하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일보 —

중공은 무서운 척
솔제니친 미국에 경고

미국은 소련에게 했던것처럼 중공에 대해 똑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된다고 망명작가 알렉산더·솔제니친(63)이 경고했다.

NBC-TV와의 인터뷰에서 솔제니친은 "미국의 중공에 대한 경제, 군사원조는 세계분쟁해결을 지연시킨다. 왜냐하면 중공의 소련과 대결상태로 일시적 보호구실을 하기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중공을 무장시키면 지구의 절반을 메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중공이 커지면 아무도 중공을 대항 할 수 없게된다"고 경고했다.

74년 러시아에서 추방당해 현재 미국 버몬트 주에 거주하는 솔제니친은 인터뷰에서 존·레보띠어 미하원의원과 대담했다.

솔제니친은 소련 강제수용소상황을 묘사한「수용소 군도」등 여러작품을 남겼다. 반면 대담자 레보띠어 의원은 최근 소련에게 자유세계통신의 확장을 제안하는 글을 썼다.

솔제니친은 미국의 소련에 대한 경제, 기술원조는 30년대 소련의 스탈린의 독재 권력을 공고히 했으며 결과적으로 2차대전후 동구와 중공을 소련에게 넘겨주는 오점을 남겼다고 말했다.

지금 중공의 상황은 30년대 소련과 견줄만한 것이라고 말하는 솔제니친은 미국은 소련보다 중공에 대해 더 아는 바 없다. 따라서 중공은 .

좋은 공산주의라는 전설이 생겼다. 그러나 30후은 40년후 미국은 중공판「수용소 군도」를 읽을 것이다고 예고,

미국은 국제정세를 정확히 파악, 또 하나의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4-1129
534-1120
484 BLOOR ST.W.
(Bloor & Bathurs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 믿고 살 수 있는
「로렉스지정판매 대리점」
(B) 534-9977, 534-7791
635 BLOOR ST.W. (한국관 앞)

서 울 식 품

교민을 위한 김장철 최대의 써비스! 최고의 저렴한 가격!

—물건이 매진 될때까지 세일 합니다—

	REG.	SPEC.
●불고기등심 최상급 Lb.(10파운드제한)	2.69	2.20
〃 중 급 Lb.(10파운드제한)	2.49	1.96
●갈 비 Lb.(BOX제한없음)	1.69	1.29
냉동갈비 Lb.	1.49	1.05
●소˙꼬 리 Lb.	1.35	.95
●참기름 깡통(일본제품) A품	10.90	9.50
〃 B품	10.50	7.40
●명 간 장 1gal.		6.90
●양 잠 피 1kg	2.25	1.80
●삼양라면 1박스(50개)당 15봉지 FREE(곧도착예정)		
●삼양냉면 1박스 5인용(1박스제한)	24.00	19.00
●청수냉면 1박스 2인용(1박스제한)	24.00	19.00
●오징어젖 Lb.(특별가격)		.80
●김 (새로 입하)	19.99	13.95

★ 햅쌀 입하!!

★ 햅쌀 입하!!

	REG.	SPEC
●멸 치 젖 Lb.	2.99	1.99
●어리굴젖 Lb.	4.90	2.90
●한국고추가루 Lb.	3.95	2.90
●각종선물용 상품(gift) —20% 할인		
●마늘·생강(특별가격)		1.45
●찹살고추장	2.50	1.99
●된 장	1.50	.99
●달걀(1다즌, Large) 가게하시는 분은 1다즌당 1.23에 드림		1.25
●물 미 역	1.39	.99
●무, 배추(1박스 구입시) 김장용 갈치젖($2.90) FREE		
●무, 배추(2박스 구입시) 닭표간장($2.95) FREE		
●무, 배추(3박스 구입시) 한국산 굴($8.00상당 2파운드) FREE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 울 식 품

SHEPPARD. E.
PITFIELD
KENNEDY
McCOWAN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MSS

중소기업대표단 교민들과 간담회

오타와 세계대회 참석 마치고

29일 한·가무역및 투자세미나

한국중소기업협동조합(단장 유기정중소기업회장) 대표단 일행이 지난 22일 토론토에 들러 교포실업인 무역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블루어 아리랑 식당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한국 중소기업 대표들과 교포무역인들 사이에 한·가 무역문제, 제품수출의 방법, 무역인들끼리의 유대등이 논의됐다.

이들 한국측 대표단은지난 19~22일 오타와에서열린 제8차 세계중소기업세미나에 참석했다.

세계 67개국에서 약 8백명의 대표들이 모인 동 세미나에서 한국 대표로는백영훈 박사(중앙대 교수)의「고도의 기술이 한국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곽수일(서울대 교수)「공장 새마을운동과 중소기업」, 신정휴(프라스틱조합이사장)의「국제무역과 중소기업」이란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번 한국대표단 을 안내한 토론토무역관 조성호관장은"이와같은 세계적회의에서 한국측의 비중이점점 커지고있다"고 전했다.

한편 토론토 세계무역센터(60 Harbord St)에서한·가무역및 투자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세미나에 한국측에서 곽승 박사, 이규현 대사등의 연사와 캐나다측에서레이두 캐나다 수입업자, 몬트리얼 은행등이 연사로나온다.

관광 증진 계획

외국관광객 유치위해

(서울28일=연합)한국교통부는 27일"외국관광객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제5차 경제개발계획이 끝나는 86년도에는 관광수입 10억달러, 외국관광객 수는 2백만을 달성한다.

년도별로 보면 82년 130만, 83년 155만, 84년 175만 그리고 85년에는 190만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인것은 년평균 10~15%증가율이다.

외국관광수입도 82년550백만, 83년 650백만, 84년 750백만, 85년 880백만달러로 증가한다.

한국은 금년 9월현재 외국관광객 82만명을 유치하여 금년목표 70%를 달성했다.

조중훈 최고소득 42억

임금노동자 83% 월30만원 이하

(서울27일=연합)작년도 한국의 최고 소득자는 대한항공사장 조중훈씨로 밝혀졌다.

27일 국세청이 발표한 한국최고소득자 20인 명단에 의하면 1위 조중훈씨는 80년도에 42억원(미화 610만달러)을 벌어 그중 절반이상(22억원)이 소득세로 나갔다.

79년도 조씨의 수입은 37억원으로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79년도에 157억원의 소득을 올려 1위를 차지한 현대그룹의 정주영회장은 작년도에는 26억원밖에 수입을 올리지 못해 1위의 영광을 대한항공 조사장에게 빼앗겼다. 정씨는 77년이래 3번이나 연속적으로 1위를 차지했었다.

정회장은 79년도에 109억원의 소득세를 낸데비해 80년도에는 16억원밖에 내지 못했다.

3위는 14억원을 벌은 동아그룹의 최준문 회장으로 79년도에는 10위를 기록했었다.

79년도에 67위를 차지한 한양주택의 김선환 사장이 일약5위로 부상했고 79년도 101위였던 금강구두 조상, 영사장은 16위로 뛰어올랐다.

79년도에 각각 11위.. 4위를 기록했던 대우그룹의 김우중회장과 대한중공업의 정희영사장은 명단에서 탈락했다.

작년도 최고소득자 20인 명단에 주류를 이루었던 건설업사장들은 79년도 수준보다 훨씬 떨어져 토목건설시장의 불경기를 반영했다.

한편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공제를 하는 임금노동자수는 230만명으로 그들이 낸 소득세공제액은 총2662억원(8860만달러)이었다.

임금노동자들중 83%(190만명)가 작년도에 월30만원보다 적은 월급을 받은 반면, 3천명의 임금노동자들은 월150만원 이상을 받았다.

天才의 모습

프랑스가 낳은 대시인(詩人) 장·콕토가 처음으로 천재인 레이몽 라디게를 만나봤을때의 인상을 이렇게 말했다。『그는 조그만 몸매에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도수높은 근시안경을 쓰고 있었다。머리칼은 빗질을 언제 했는지 엉클어져 어깨까지 길게 늘어져 마치 물의 수염처럼 보였다。그가 걸을 땐 뛰어오르는 것처럼 걸어서 마치 길바닥에 고무융단이라도 깔아놓은 것같았다…』

—얘기의 샘—

빵과 菓子

프랑스혁명때 민중은 베르사이유궁전으로 쳐들어갔다。이광경을 창문에서 내려다보고 있던 왕비『저사람들은 뭐를 바라고있지?』시녀『네, 저사람들은 굶주려서 빵을 달라고 저럽니다。』왕비『저런!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으면 될것을…』

▲1백세 맞은 보스턴 심포니—창설1백주년을 맞은 보스턴심포니는 22일 보스턴 공연에서 베토벤 NO.9을 연주, 청중들의 열렬한 갈채를 받았다. 지휘자 세이지 오자와가 청중들에게 답례하고있다.〈보스턴—AP〉

두소년의 꿈 좌절

가난비관 밀출국기도

(서울27일=연합)10대소년 2명이 워캄 유엔군 사령관 전용기 앞바퀴에 숨어있다가 27일아침 붙잡혔다고 한국경찰이 발표했다.

경찰 보고서에 의하면이들 두소년은 26일저녁 군용비행장 가시철망을 뚫고 몰래 잠입, 비행기 바퀴에 몸을감추고 밤을 보냈다. 이들은 각각 16, 17세로 서울에 살며, 신문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해 왔다.

경찰은 이들이 숨어있던 비행기 주위를 순찰하던미군 헌병에 발견되어 한국경찰에 인계되었다고 밝혔다.

이들 두 신문팔이 소년은 경찰에서 자기들이 숨었던 비행기가 누구에게속했는지 몰랐으며, 친구들처럼 고등학교에 진학할만한 여유가 없어서 해외로 나갈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 이런 방법을 택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은 여러분의生命과 財産을 위협 합니다.

〈수 상〉 낙 서(落書)·2 (하)

홍 기 만 문협회원

아내는 CKEY방송국 여직원인「캐롤」과 창가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창너머로는 고급 수상(水上)레스토랑인 Captain John's호(号)가 그녀의 기함(旗艦)옆에 사면으로 기운채 반쯤 침몰된 모습이 보이고, 그 위를 갈매기 몇마리가 다가 왔다가는 다시 날개를 펴고 사라지곤 한다.

유난히 햇살이 밝고맑은 오후의 한가로움에 잠시취했을때, 그 고요를 깨듯 굵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치바베큐엔 언제 초대할거요, 케이(아내이름)?"〈토론토스타의 G기자다.〉

"로타리오 잭팟이 맞음 초청한다고 했잖아요—."

이미 농담에 익숙한 아내의 대꾸다.

G기자는〈스타〉신문사의 중견 정치부기자다. 세계의 굵직한 사건이 터지면 즉각 현지에 달려가 예리한 기사를 송고한다.

박대통령 피살사건 당시 현지로부터의 그의 기사가 〈스타〉지의 헤드라인을장식했던 것은 이곳 교민들의 기억에 생생하다. 그러면서도 직업의식을 떠나면 곧잘 농담을 하는분이다.

"잭팟이 맞으면 물론 나두 초청하겠지, 케이?" 캐롤의 말이다. 그녀의 빛나는 금발이 햇볕에 반사되어 더욱 빛나보인다.

"김치바베큐란 어떤건가요. 한국음식?"

그녀는 호기심에찬 파란눈으로 G기자와 아내를번갈아 건너본다.

"그건 아주 간단하지 캐롤—."G기자의 설명이다. "마늘 한 파운드, 고추가루 한 파운드, 소금 한 파운드를 배추와 무우에 버무리면 되니까, 맛은 상상에 맡겨요."

물론 그는 싱글거리며 아내를 골리기위한 농담조애기다. "아, 그래서…."

긴 눈썹을가진 캐롤의커다란 눈이 두어번 껌뻑이더니 수수께끼를 풀었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한다.

지난여름 동남아 여행때 서울에 이틀간체재 했었는데, 무척 마늘을 좋아하는 민족이구나 하고 혼자 생각했었다는 것이다. 공항에서부터 호텔까지 줄곧마늘냄새가 후각에 스며들더라는 것이다.

「김치바베큐」이것은 G기자의 신조어(新造語)임에 틀림없다. 나는 듣지도 상상도 못한 단어이다. 일리는 있다. 불고기를굽다가는 어지간히 고기가익으면 김치를 함께 올려놓고 구우니 그는「김치바베큐」라 이름지었다는 것이다.

"그 맛을 설명해줄까, 캐롤?"

"내가 설명할께요 캐롤, 이건 한국음식 이니까—."

아내가 G기자의 말을가로막으면서 나선다.

"「림버거」치스보다는 한결 맛이 향긋하구요. 냄새는림버거치스에 비하면 샤넬(5)쯤 된다고 생각할 돼요."

"이건 보복인데—"

G기자는 미소를 짓는다.

"사실인걸요, 미안하지만"

역습에 성공한것 같은기분의 아내는 유쾌해 보인다.

미소를 머금은채 줄곧그들의 한담을 듣고 있으면서도 나의 심정은 무엇이라 표현할수 없는 착잡한 것이었다. 고소(苦笑)란이럴때 쓰는 말인가.

G기자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김포공항을 비행기가 이륙하자"아, 한국의 김치는 맵구나"하고 혼자중얼거렸다는 것이다. 그만큼 김치는 자기에게 모든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매웠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치바베큐의 냄새역시 잊을수 없는 것이었다고. 물론 이것은 모두 농담에 불과하다. 그의 기사에는 김치이야기란 한번도 나온적이 없으니까.

1988년 하계올림픽이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란다. 많은 외국인이 서울에 모여들 것이다. 그때 그네들의 시각과 후각에 느껴지는 김치는 과연 어떤것일까…….

림버거 치즈나 블루치즈의 지독한 냄새는 김치냄새 못지않게 역겨운 것이지만 이네들은 지혜를 모으고 노력을 거듭해서 누구나 즐길수 있는 치즈를 대량으로 보급하고 있는것이다.

우리는 외국인들이 그로테스크한 음식이라고 지칭하는것을 마냥 그대로 우리만이 즐겨야 할것인가. 재래의 특유한「맛과 멋의 풍요함」을 보존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수 있는 김치와 깍두기를 제조한다는것은 겨울이면 서민들의 비극을 흔히 초래하는 일산화탄소와 함께 어떤 동화의 잃어버린 열쇠의 이야기처럼 영구히 풀리지 않는 것일까.

「이별의 노래」와 함께 올림픽의 막이내리고 각기 자기나라를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외국인들이" 아 코리아의 김치는 맵고 역하구나—"하는 말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만 나 하나만의 기원은 아닐 것이다.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⑧③

팔리·모왓 원작, 원 재 훈 옮김

그러나 그 이후 나는 이리가 마치 자기 새끼들을 보호할려는 것처럼 자기소유물에 대하여 광적인 질투를 느끼는 불행한 야만인 이라고 인식되었다. 거기에 대한 보복도 없었으며 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들의 소유물을 자유롭게 빌리기도 하고 아주 내것으로 하기도 했다.

바렌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내가 속이려 들지 않는한 그렇게 하는것이 나의 특권이었고 또 그것 때문에 벌을 받지도 않았다. 이미 상술한 바와같이 두개의 성문화 되지않은 법이 생명의 법이라고 알려진 행동의 규범으로 이땅의 다른법들과 모호하게 얽혀있다.

법을 형성하는 크고 작은 (자제) 제한은 미묘하게 균형이 잡혀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융통성이 있다. 그러나이할미우트사람들이 꿈에도 감히 이 법을 어길려고 생각하지 않도록 장벽을 만들어 놓고 있다. 그들 법 자체의 성격이 매우 융통성이 있는 것같으며 각자의 해석에 맡기고 또 각자의 케이스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능력본위의법이기 때문에 이할미우트의 캠프에서는 소위 "범죄"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따위의 선명한 법의 부재(不在)를 볼 수가 있다.

전체적으로 이누이트에 관하여 쓰여진 모든 이야기의 대부분은 우리 백인들의 윤리로 판단해서 만들어진 에스키모에 대하여 편견을 갖고 무시무시하게 혹은 잘난체하는 만족감으로 지어진것들이다.

인육을 먹고, 부인 바꿔치기, 살인, 유아살해, 잔인함, 도둑질 따위의 북극에 대한 이야기들이 한결같이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들 이야기들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뿐만아니라 이 북극 사람들의 법과 기존관념을 파괴하고 이땅에서는 그런법이 소용이 없는데도 백인의 법으로 바꾸어 놓을려는 스스로 올바른척하는 백인들의 침략성을 정당화할려는 것들이다.

예를들어 살인을 놓고 보자.

여러분이 지난 20년동안 캐나다 연방경찰의 보고를 조사해 보고 에스키모에 의해서 살해된 숫자와 카나다의 다른 지방에서 일어난 숫자를 비교해 본다면 이누이트 캠프에서 일어난 것은 극히 소수에 불과 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현실이다. 더욱이 소위 말해서 에스키모의살인은 진정한 의미에서 살인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행해지는 자비를 베푸는 살인이다.

현재 미결된 살인자들중의 대부분이 백인살해에관련이 되어있는데 살인자들이 백인 방문객으로부터직접 간접으로 위협을 당할때 일어났으며 이런 위협은 이누이트에게 부당한공포를 갖다주었고 에스키모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였던 것이다.

백인들을 보복하거나 물건을 약탈하려고 에스키모가 살해한 확실한 케이스는 내가 본 일이 없다. 다만 자기방어를 위해서 오판 또는 정말로 위협을 당했을때만 일어났다.

모든 살인의 근본동기는 언제나 공포를 느꼈기 때문이다. 물론 극 소수지만 다른 이유로 일어난 살인사건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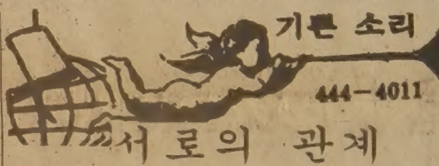
이런 피의보복에 대해말하지 않을수 없다. 북극의 히스테리아라고 불리는 이상한 광열병에 걸려 사람을 죽인예도 더러 있다.

지난 몇년간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광열병에 걸려 사람을 죽인경우가 있었고 또 다른 케이스로는 종교적인 정신착란이 있다. 그러나 에스키모중에서 그런 발광은 이누이트의 전통적인 종교관념상으로 볼때드물다.

이런 사건중 잘 알려진 집단살인사건은 원주민 부락에 선교사가 도착한 후에 일어났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살인사건 풍문을 듣고 조사를 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 주민이 기독교 교리를 잘 못 이해하고 공포감에서 헤어나질 못해 끝내 미쳐버렸다. 그는 자기가 예수의 화신이라고 믿고 이를 마을사람들에게 알리자 사람들은 흥분했다. 이미 친사람은 몇사람을 살해한후 백인의 종교에 대항, 자기고집을 꺾지 않았던 노인에 의해 결국 처형 되었다. 이같은 제정신을 잃지 않은 단 한사람만이 그 살인자를 다룰수 있었다. 이할미우트 사람들은 도둑질 또는 원래부터 냉혈한이기 때문에 살인하는 일은 절대 없다.

(계속)



서로의 관계

안 상 엽

인류의 역사와 문화가 형성된이후 오늘날과같이 사람이 홀로, 그리고 조용히 살려는때가 없었던것 같다. 씨족사회로부터 부족사회, 그리고 동족사회를 형성해서 살았고, 가정도 대가족제도 속에서생활해 왔다. 그러나 세계1, 2차대전 이후 지구상에는 약 100개의 나라가 헤어지고 독립해서 이젠 150개 나라로 되었으며, 가정도 대가족제도를 벗어나 소가족제도가되다가 지금은"핵가족"이라는 단위로 나뉘어 잘해야 부모와 한둘의 자녀가 뭉쳐서 살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도 큰 단위가되어 쪼개지는 상태인데, 발달된 문화권에 들어있다는 사회와 나라 일수록 미혼가족(Unmarried Couple)이 많아지고, 결혼에 비해 약 3분지1의 부부가 헤어지는 현상이며, 그같이도 귀여웠던 자녀들도 머리가 크고 돈맛을 알면 부모를떠나자기나름의 독립생활을 하려는 경향인 것이다.

이같이 되어가는 인간사회는 정치, 경제, 문화, 윤리, 종교등 수많은 원인과 이유가 잠재하고 내포해 있다. 그러나 가장큰 원인의 하나를"그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크냐 하는 생각이 번져 나갔다"(누가복음9:46)는 말씀에서 찾아볼수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란 모이자 마자"누가크냐"라는 생각을 먼저하게 된다. 즉 강자와 약자, 유능한 사람과 무능한 사람, 단순한 사람과 복잡한 사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부요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등등을 구별하고 대조하자는 말이다.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비난하고, 편을짜고, 심지어는 생사를 건 싸움까지 하면서, 이성을 잃고 서로의 관계와 사람을 여지없이 파괴한다. 그러다가 강자가 생겨 약자를누루면, 약자는 또 기회가 있는대로 자유와 권리의 깃발을 쳐들고 대항을 함으로 끝없는 악순환의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한치도 양보하지 못하는 자기욕심이나, 자기주장이 가득한 자기중심의 생활을 해가는 증거가 된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살수있는 존재가 아니다. 육신을 입은 사람은 서로의 관계를 갖고 살아야 한다. 서로의 관계란 책임이요, 윤리인 것이다. 크고작은 권리가 아니라, 관계속에 있는"사랑"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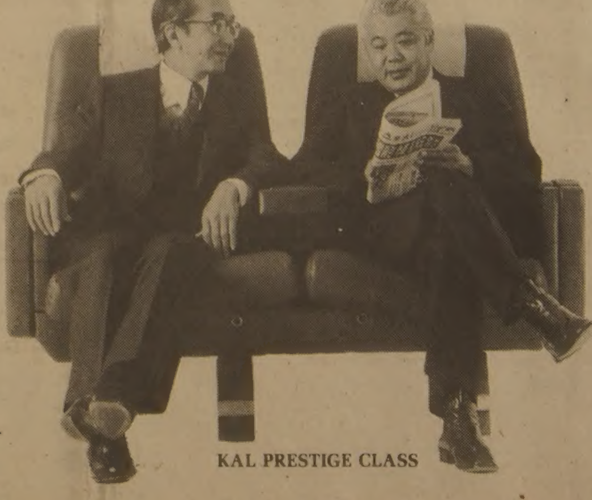
사랑의 최고 도덕률이 곧"사랑"인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심 같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면 이웃을 사랑해야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이웃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한다. 만일그것이 아니라면 "거짓사람" 이라고 성서는 심판한다. 사랑이있는 관계만이 올바른 관계인 것이다.

조용히 살아가는 이웃을 말로나 행위로 의심하고 비판하고 괴롭히는 것은 바로 자기만을 옳다고 주장하는 인격인 것이다. 이웃의 동정을 얻어서까지 자기를 크게 하고, 관계의 잘 잘못을 구별도 못하고 혼란을 일으 켜 자기중심을 정당화 하려는 자세는 바리새인적 외식이요, 관계를 맺는 올바른 정신과 진리를 파괴시키는 가장 무서운 작용인 것이다. 올바른 관계는 깨끗하고 올바른 진리가 살아있을때만 가능한 것이다. 성령과 악령, 진리와 비리, 하나님의말과 사람의 해석, 사랑과 미움이 혼합되거나 타협할수 없다. 다만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될때만 따뜻한 사랑이 담길 수 있고,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알고 낮출 뿐 아니라, 남을 좋게 생각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사람이 부모요 형제라"는 서로의 관계를 말씀 하셨다. 내 중심의 이웃이 아니라, 주님을 중심으로한 관계를 가질때서로 사랑하고 섬길수 있다. (선교교회 담임목사)

KOREAN AIR LINES

OTHER BUSINESS CLASS



KAL PRESTIGE CLASS

새로운 Prestige Class 의 Dreamerette Seat 침대겸용의자는 등받침이 50° 까지 기울어지는 크고 넓은 부드러운 가죽의자이며 좌석 앞의 넓은 공간은 여러분의 긴 여행을 더욱 안락하게 해 드릴것 입니다.

2등 정상운임(혹은 직행운임)에 $50을 추가 지불하시면 Prestige Class 의 편한 좌석에서 1등 써비스와 같은 오도블과 샴페인, 와인 등 음료를 무료로 즐기시게 되며 또한 First Class 카운터를 이용하게되므로 신속한 탑승수속은 물론 목적지 도착후에도 기다릴 필요없이 수화물을 즉시 찾으시게 됩니다.

대한항공은 미주에서 매주 20회 서울로 출발하는 유일한 항공사 입니다. 로스앤젤리스에서 주 11회, 뉴욕에서 주 3회 그리고 호노루루에서 주 6회 출발하므로 가장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읍니다.

이번 여행은 우리의 언어, 우리의 예절로 정성껏 모시는 대한항공의 새로운 Prestige Class 를 이용해 보세요.

편명	KE001	KE005	KE015	편명	KE007
요일	화·목·토·일	목·일	월·화·수·금·토	요일	화·목·일
로스앤젤리스	10:00	23:20	23:20	뉴욕	23:55
호노루루	12:20 13:30	01:40+1 03:00+1	▼		▼
동경	16:10+1 17:20+1	▼			
서울	19:30+1	07:30+2	07:20+2	서울	06:50+2

비좁은 좌석·넓직한 좌석

같은 여행길에도 전혀 다른 세계가 있읍니다.

대한항공의 태평양 노선 B747 점보기에는 여러분께서 더욱 편안히 여행 하시도록 PRESTIGE CLASS를 새로 마련했읍니다.

大韓航空

※운임 또는 예약에 대하여는 대한항공 또는 지정여행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여행사 : 한국여행사(531-4607) 신세계여행사(536-2155) 서울여행사(535-6004) 제일여행사(535-2377) 토론토영업소 : (416) 862-8250

E REGION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선금)연 $90. 월$8.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라켓하나로 3백만불 벌었다

「지미·코너즈와 에버트·로이드」

◇73년부터 80년까지 8년간 303만달러를 벌어 테니스 재벌이된 크리스·에버트·로이드.

현대테니스계는 일종의 대규모산업형태를 이루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테니스경기에 부수되는 용구판매나 테니스를 통한 광고경쟁을 위해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며 스폰서들이 붙는 바람에 상금만 해도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하고 있다.

남자테니스의 연간 시리즈는 WCT대회를 제외하곤 거의 전부가 볼보·그랑프리안에 속해 있다. 볼보는 스웨덴의 세계적 자동차메이커로 전체 대회의 스폰서 역할을 한다. 볼보·그랑프리에는 그랜드슬램(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선수권대회는 물론 데이비스컵 대회까지도 포함되는데 올해의 규모는 상금 17만5천달러이상이 걸린 대회수가 42개, 그이하의 상금을 건 대회수가 61개등 모두 1백3개대회로 짜여져 있다. 올해의 총상금액수는 1천4백만달러. 대회수와 상금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여자테니스 시리즈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에이본·서키트가 11개순회경기를, 콜게이트·시리즈는 38개 대회를 펼친다. 콜게이트의 상금총액은 2백50만달러에 달한다. 또 연말에 단식랭킹35위까지, 복식랭킹 20위까지의 선수들에게는 80만달러의 상금을 보너스·풀이라는 명목으로 분배하게 된다.

올해의賞金총액만千4백만弗

엄청난 모델料로 돈방석에

선수들은 연간 스케줄을 놓고 출전할 대회를 선택한다. 각종 대회는 세계의 구석구석을 돌아가며 거의 연중무휴로 연결되므로 일류선수들은 지겹도록 비행기여행을 해야한다. 지난해 가장 왕성하게 각종대회에 출전한것은 이반·렌들(체코)로 33개 대회이고 랭킹1위 비욘·보그(스웨덴)는 16개, 존·매켄로(미국)는 24개, 지미·코너즈는 21개, 그리고 기예르모·빌라스(아르헨티나)는 20개 대회에 각각 출전했었다.

여자선수들 중에서는 웬디 턴불(호주)과 마티나·나브라틸로바(미국)가 각각 24개 대회에 나섰고 랭킹1위 크리스·에버트·로이드(미국)는 17개, 2위 트레이시·오스틴(미국)은 21개 대회에서 겨뤘다. 대회상금은 성적에 따라 분배받는다. 프로시대에 접어들어 가장 많은 상금을 끌어모은 남자선수는 지미·코너즈로 80년12월1일 현재까지 9년간 3백11만7천6백81달러를 벌었다. 2위는 1년늦게 데뷔한 비욘·보그의 2백94만7천여달러. 연간최다소득은 비욘·보그가 79년 벌어들인 1백만8천7백24달러.

한편 여자선수로는 크리스·에버트·로이드의 73~80년 소득 3백2만9천달러가 최고이며 마티나·나브라틸로바가 74~80년 사이 2백54만달러를 벌어 2위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일류선수들의 수입명세에는 상금외에도 광고수입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라케트하나로 어마어마한 거부로 성장해 가고있다.

〈근작시 2제〉

문인귀

들국화

그리움은 너
너는
꽃이름 입고 사는
그리움。

누구인가
너의 옷깃을 스치면
떠기 먼 하늘가에
그냥 보내는 미소。

10월11일 서울에서

길

나의 꿈은
당신을 따름에 있읍니다。
당신의 자애가
나의 따름을 용서합니다。

아무리, 아무리
빗물로 휑긴 하늘을 펼쳐봐도
당신의 길이는 따질 수 없는
긴 허락만 주십니다。

나의 발자국이
이렇게 어지러운 밤
당신은 이것으로도
나의 보람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루하루 보태가는
이 나의 보람을
어떻게 당신을 위해
드릴 수 있을까요。

나의 꿈은 결코
당신을 따라야만 합니다。

9월29일 서울에서

광고는 사업을 번창시킵니다

문의처
본 사 광고국
533-2361

移民과여행자를위한 생활英語 〈212〉

담당 민병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I' M OFF TOMORROW.

퇴근길에 내일 다시 만나자는 같은 직장의 미국인 동료에게 「내일은 내가 노는날이다」를 말한다는 것이 I play tomorrow.라고해서 웃겼다는 이야기도 있다。

off는 쉬는, 휴가의 뜻으로 「내일은비번이다」는 I' m off tomorrow.가 정답이다。갑자기 무슨일이 생겨서 내일하루를 쉬어야 되는 경우에는 Can I take tomorrow off? 라고 하면 된다。

play라는 단어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What' s your occupation? 「직업이 무엇인가요?」라고 묻는 미국인에게 「당장 놀고 있읍니다」를 I just play.라고하면 도저히 이해를 못한다。직업없이 「당장에 놀고있다」는 말은 I' m unemployed at the moment. 라고 하면된다。

「나는 가정주부다」라는 말은 I' m a housekeeper. 라고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 못된 표현이다。housekeeper란 집을 지켜주는 사람으로서 「가정부」, 「집관리인」과 같이 본인이 뜻하는 바와는 다른 인상을 줄수도 있다。올바른 영역은 I' m a housewife.이다。

A : Hi, John.
B : Hi, Sue. You look pale. Are you ill?
A : No, I' m just tired.
B : You should take a day or two off and rest.
A : I' m off tomorrow. It' ll give me a chance to catch up on my sleep. When are you off?
B : Not until next week.
A : 안녕하세요? 잔。
B : 안녕하세요? 수。안색이 창백한데 어디 편찮으세요?
A : 아네요。그냥피곤한것같습니다。
B : 하루나 이틀쯤 휴가를 받아서 쉬셔야 될 것같군요。
A : 내일은 제가 쉬는날입니다。내일은 그동안 못잤던 잠을 잘수 있을거에요。언제가 쉬는날이세요?
B : 다음주에나 가야 쉬는날이 돌아옵니다。

※주 give(a person)chance:~에게기회를주다。catch up:뒤쫓아 미치다。Don't walk too fast. I can't catch up with you.너무빨리 걷지마세요。당신을 못쫓아 가겠군요。

본 칼람 담당자의 「민병철 생활영어」책은 이중언어 교육처및 교포들의 영어교육처수곳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본 캐너더·뉴스, 미국전역의 한국일보, 한국의 일간스포츠에 연재되고 한국의 MBC 문화방송에서 방송되고 있으며 책의 내용을 전부 녹음한 카세트에는 「특수발음교정법」이 한국말및 영어로 수록되어있음. 또한 한국및 미주사상최초로 제작된 「영어회화 비디오」는 미국현지 생활 현장을 촬영하였으며 생활영어와 발음교정에 중점을 두어 편집되었음.

구입처 :
B. 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 S. A.
전화 : (312) 966-4050
책 : 제1권(12불) 제2권(12불) 제3권(12불)
카세트 : 1권용(33불) 2권용(38불) 3권용(38불)
비디오 : BETA(60불).
VHS(65불)
※U. S. 마니오더에 한합니다.

민병철생활영어 1·2·3권
책、카세트、비디오

三國志 (242)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제5차 정기이사회 소집공고

회칙 15조1항에 의거 81년도 제5차 정기이사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 아　　래 —

일　시 : 1981년11월6(금요일)
　　　하오6시30분

장　소 : Don Vally Holiday Inn
　　　1250 Eglinton Ave. East

안　건 : 1. 신년도 사업계획및 예산안
　　　2. 감사보고
　　　3. 분과위원회 보고
　　　4. 기타사항

※저녁식사 제공함.

1981년10월19일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이사장 김 태 진

한인실업인협회
정부회장 입후보등록공고

회칙 제6장 22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부회장 입후보 등록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선 거 일 : 1981년11월27일(금요일) 오후4시
선거장소 : Holiday Inn Don Vally
　　　1250 Eglinton Ave. East(Wynford Dr에 입구있음)
등록마감 : 1981년11월11일(수요일) 오전12시
등 록 금 : 각 입후보당 $1,000(은행보증수표, 일체반환없음)
후보자격 : 회칙 제2장 4조1항에 의한 정회원
등록구비서류 :
　가. 이력서2부(명함판 사진1매씩)
　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1부
　다. 추천서 1부(선거관리위원회 서식에 의한 정회원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추천서)

1981년 10월 9일

한인실업인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국 영

한인실업인협회
정기총회 소집공고

본회 회칙 제3장 제7조 제3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1981년도 정기총회를 소집 공고합니다.

— 아　　래 —

시　일 : 1981년11월27일(금요일) 하오4시

장　소 : Don Vally Holiday Inn
　　　1250 Eglinton Ave. E.
　　　(Wynford Dr. 에 입구있음)

안　건 : 1. 과년도 사업보고및 결산승인
　　　2. 신년도 사업계획및 예산안
　　　3. 이사회 보고
　　　4. 감사보고
　　　5. 정 부회장및 이사선출
　　　6. 회칙개정
　　　7. 기타안건

1981년10월9일

한인실업인협회장
이 형 인

MASTER AUTO BODY
●A급 BODY MAN(16년 경험)
●사고 보험관계 일체처리
●무료견적
●수리중 자동차 대여
●사고차량 픽업써비스
95 PORTLAND ST. TOR.
(B) 255-2111
255-1000
(R) 828-5001
전 기 덕
Queensway
Portland St
Lakeshore Blvd

거북이선물집
각종귀국선물 염가봉사
617 BLOOR ST. W. TOR.
☎ : B) 535-2143 R) 656-3446
대표 이 정 석

DR. KIM S RESTAURANT
4852 YONGE ST. WILLOWDALE.
☎ 221-1507 / 224-1060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THE KOREA TIMES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
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도너스 샾에서 일하실 파트타임 여자헬퍼구함 :
월~금 하오3시반~하오9시반, 토 상오8시~하오6시
☎ : 598-1140 (칼레지 써브웨이 안에 있음)

주말에 일할 여학생 캐쉬어 구함 :
스카보로 지역
☎ : 438-1528

웨이트레스 1명 구함
628 BLOOR ST. W.

봉재사 급구(고급 브라우스, 스카트, 바지)시간당 $4 이상
다림질 하실분 홈워커(고급양장), 고소득
292PARLIAMENT(DUNDAS에 가까움) ☎ : 362-2300

토요학교 밴 운전하실분 구함 : 토론토 서쪽지역에
거주하는 분, PAY : $30(약4시간 소요)
☎ : 960-0074 씨알한국인학교

스토아에서 일할 남자헬퍼구함(주40시간 이상)
MAIN & GERRARD ST. 지역
☎ : 691-3363

산후 조리 해주실 분 구함
다운타운 지역, 우대함
☎ : 923-4354

자수기계 OPERATER구함
경험있는 분은 월급이 많음
☎ : 769-4726

재봉사 구함 :
FINCH & DUFFERIN
☎ : 636-8348

FULLTIME캐쉬어구함 :
경험있는 분에 한함, 학생도 가능
☎ : 625-1620. 미시사가 지역임

"급 구"

① 윤전기및 인쇄용카메라 기술자
② 윤전기및 인쇄카메라 기술 배우실분
☎ : 533-2361. 미세스 김

풀타임 남자 가게헬퍼구함
스카보로 지역
☎ : 284-6311(B), 284-8862(R)(오후4시이후)

버라이어티 스토어 헬퍼구함 : 단 유경험자에 한함,
저녁4시~8시반까지
☎ : 368-8147, 39 BELSHAW PLACE.

풀타임 또는 파타임 헬퍼구함 : FRUIT MARKET
744 DUNDAS W. (Dundas × Bathurst)
☎ : 368-8077, 491-3623(밤9시이후) MS. LEE

GAS ATTENDANT구함
☎ : 782-6311

셔니일이나
자수하실 분 구함
☎ : 244-1635

출퇴근 하시면서 4개월된 애기 보아주실 분
스카보로지역(미드랜드×핀치)
☎ : 299-1103(오후5시 이후 전화요함)

허드레일 하실분 구함
오리엔탈 파레스
☎ : 533-3545

매매및 양도

74년형 BUIKE : 뉴페인팅, 보증서있음
A-1 CONDITION.
☎ : 759-3923

핀볼 기계와 비데오 게임 : 액설런트 비즈네스 매매
☎ : 767-7998, 762-5455 OR 245-5544
PAGER #4701

성업중인 햄버거 샾 팝니다
☎ 530-0748 DAVID

스토아달린 빌딩 팝니다.
☎ : 653-4633
Mrs. 코메스

77년형 폰티악 밴트럭 :
5만 마일, 3천5백달러, 6기통
☎ : 248-5472

아파트먼트 싸이즈 맞는 피아노 팝니다 :
$1,500
☎ : 783-6871(낮), 636-1430(저녁)

T. V. 스테레오 최급전문 :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7만+스탁
☎ 533-2400 미스타 김

매매 ●도나스 캐비넷 셋트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트랑15년 리스
☎ 535-2804 미세스 김

좋은지역에 위치한 바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가정형편상 급매코자 함)
주매상 : $3500~4000 리스 : 4년
ASKING : 29000+스탁(좋은 OFFER를 줌)
주소 : 1430 DUNDAS W.
☎ : 531-0773 Mr. 김 (직접내방바람)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 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 849-0959, 7374~6

KNOB HILL FARM(러빌 팜)안에 있는 가게
세놓읍니다.
☎ : 278-3975 270-7072(6시이후)

도나스 샾 매매 : 이윤 좋고 매우 전망이 좋은 곳에 위치
시간짧음 (주6일 열음, 하루 11시간 영업)
관심 있는분은 직접 내방요함 55 KENSINGTON AVE. Tor

74년형 닷지 1 밴트럭 팝니다.
성능이 우수함
☎ 248-4578 미스타 홍

T. V. & STEREO BUSINESS FOR SALE
●HIGH PROFIT, ●고급물품 전문메이커 취급,
TRAINING시킴, ●PREMIUM LOCATION.
●VIDEO TAPE MACHINE BUSINESS전망
●ASK. MR전, MR. 진 ☎ : 745-5555

A. M. F. M. 카셀(자동차) $85부터
CITY AUTO RADIO SALES SERVICE INSTALLATION
102 TURBINE DR. WESTON, ☎ : 743-5669

플라자 내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5600, 아스킹 $32,000, 리스8년+옵션
☎ : 255-5038 미세스 BORDA

버라이어티가게 매매 :
가격 : $6,900+스탁
☎ : 657-1424 MR. CHRIS(크리스)

※안내광고는 선불을 원칙으로 하오니 양자하시기 바랍니다.

비자와 매스터카드로!

VISA master charge

오시지 않고
광고를 내시는
편리한 방법이지요.

☎ : 533-2361

집·방세·하숙

방세놓습니다 : 1 베드룸(살림할수있음)
BLOOR ST. W. 중심가
☎ : 533-0168(PM1시~PM9시) 미스타 김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인 쇄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244-2301

인벤토리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가게를 매매 하시려고요??
(한국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533-2361

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카펫·카텐

가나안카텐·카펫 브라인드 SHADE
2390 LAKESHORE BLVD. W.
☎ :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바우종합광고회사
간 판 부 : 각종전광/아크릴간판, 현수막, 윈도우사인
그래픽디자인부 : 원색Catalog/Brochure/팜프렛/포스터/
상업도안/신문광고디자인 제작대행
인테리어디자인부 : 일반상점실내장식,
건축설계 상담및 시공
인 쇄 부 : 특수인쇄/도서(책자)편집출판, '82년도 호화판
한국달력주문제작중
T. P. ADVERSITING GROUP
OFFICE : 637A BLOOR ST. W. TOR.(은하보석상 옆)
공 장 : 287 Horner Ave. Etobicoke.
전 화 : 535-0647, 465-1722 대표 : 송 관 현
시외지역 전화문의및 무료출장견적 환영

미 용

헬 렌 미 용 실 미세스 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킴스 미용실
☎ :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시설및 수리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상하수도 전기제품 각종유리
PAINT 수리및 시설
☎ : 535-4441 미스타 김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센 츄 리 냉 동 원 종 성, 이 언 식
☎ : 221-5441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조율 SOO PIANO SERVICE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꽃 집

크로스웨이(구 콜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님파·김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웅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장 춘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0516(B), 279-3719(R) 허소피아

자동차수리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64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ROGERS GARAGE ☎ 651-9324(B)
자동차 수리 일체). 226-5430(R)
20 ROGERS RD. 변 달 원

아 십 니 까?
안내광고란의 위력을….

여행사

한 국 여 행 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한 방 원

서 울 한 의 원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 × 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황진함)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풍웅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면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일주일, 내내 아침10시~저녁8시 (일요일도 OPEN)
차이나타운내(던다스×스파다이나)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콜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기 타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8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 숙

다이아몬드·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 MR. LEE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630 BLOOR ST. W. TOR.
☎ : 535-7772

SOME JEWELLERY 쏘메쎄라
●각종보석주문(공장도가격), ●옛보석을 새보석으로
●디자인, 보석수리(일본말 환영) ☎ : 225-4641

SUREKILLER
각종벌레, 개미, 바퀴벌레 : 100% 효과보장
☎ : 368-9018

니폰·비데오 센터 :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 698-0633 하마구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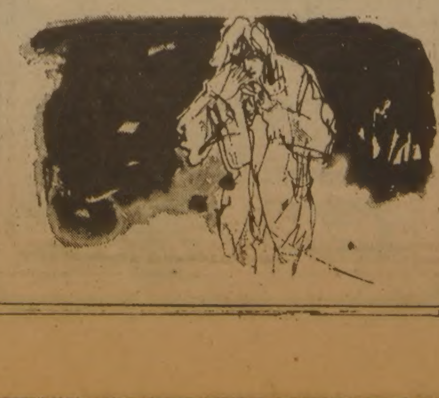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락

한국일보
식품점서 판매중

모눈종이위의 生 ④

趙善作 作
金光培 畫
<237>

우리는 서로가 모순의 별빛.
한동안 우리의 길을 잃은들 어쩌랴.
희망이 아무 없는 젊은 아니다.
먼먼 옛날
우리가 당신의 품에서 하나였듯이 우리는 서로 모순이 아니다.
길 잃은 젊음아!
길 잃은 젊음아!
길 잃어 서로 부딪는 모순들아!
우리가 아니면 누가 길 잃어 서로 우리로써 부딪쳤는가.
우리가 바라보는 곳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돌아보는 곳에 우리가 또 있을지라도
우리는 서로 이름 부르며
우리를 찾는다.



죽음을 껴안고,
마른 번개를 껴안고,
지진을 껴안고 부르는 우리의 찢어진 이름.
우리가 아니면 누가 서로 이름 부르며
우리를 찾겠는가.
우리는 서로가 모순의 별빛.
한동안 우리의 길을 잃은들 어쩌랴.

아침에 눈을 떠보니 유명한 사람이 되어있더라는 식의 일이 세호에게서 일어났다. 그런식의 행운이 세호에게도 뜻밖의 일인지 어쩐지 나는 잘 몰라도, 나에게는 꽤 그럴게 보인 것이다. 은애를 통해 나는 세호가 자신의 디스크를 만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그것이 전파를 타게 되었다는 나에게는 좀 황당무계하기만했던 전말도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어느날 아침에 들으니 정말 세호의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 나오고 있었고, 그날 밤에는 또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노래를 불렀는가 하면 세호의 노래는 순식간에 대유행이 되어버린 것이다. 레코드가 몇만 장이 나갔다는 소식이었고, 독집(음반)이 나왔고, 텔레비전이 〈안세호와 90분간〉이라는 대형쇼 프로그램을 예고하는가 하면 곧 이어서 극장 무대에서의 리사이틀을 기획하고 있다는 등, 나는 정신이 하나도 없을 지경이었다. 세상이 마치 세호를 위해서 잠착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그를 떠메어 올린 듯한 느낌이었으며, 덤달아 나도 숨막힌 나날을 보냈다.

이런일은 내가 부산여행에 따라 나서기 훨씬전부터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인화가 돌아왔을때쯤은 이미 세호의 노래가 아무데서나, 일테면 길가의 전파사 앞에서 잠시만 서 있어도 들을수가 있게된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나는 멍청하게 숨었었을른지 세호가 부른노래의 가사도 모르고 있는 형편이었다.

한동안 세호는 부산친구에 대한 의리라면서 부산까지 왔다갔다했는데 서울에서의일이 바빠지자 부산은 고사하고 집에도 들르지못했으며 시내중심가의 호텔방 하나를 빌어 그곳에서 생활했다. 자연히 은애도 집보다는 세호에게 가있는 때가 많아졌고, 집에는 예나처럼 어머니와 나 단둘만이 있게되었다. 그제서야 나도 세호의노래를 익혀보리라 마음먹고 카세트와 테이프를 구했던것이다.

그런 노래를 소음이라고 하는지 어떤지 잘 몰라도 세호의 노래는 내게도 엉뚱한 짚속이 침묵되는 듯한 잔잔한 감흥을 주었다. 어머니께도 그것은 마찬가지여서 〈우리는 서로가 모순의 별빛. 한동안 우리의 길을 잃은들 어떠랴〉하고 세호의 노래가 시작되면 먼저 눈물부터 그렁그렁해지시고는 하셨다.

중앙 AUTO-SERVICE
• TUNE UP
• SAFTY INSPECTION CERTIFY
•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TOR
532-3946 김창세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제2副市長·제2副知事制 폐지

총무처 地方組織축소 정비방안 확정

市道敎委(서울·釜山 지역 除外)副교육감制도
副郡守는 自然減少 보충안해
非常담당관 민방위국 통폐합
江原제외 道廳山林局도 폐지

총무처는 26일 행정기구축소개편의 2단계 조치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각시·도의 제2부시장과 제2부지사, 서울·釜山을 제외한 시·도교육위원회 부교육감제도를 폐지하는것을 주요골자로하는 지방조직축소정비방안을 확정했다. 이방안에 따르면▲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 전남북, 경남북, 충남, 경기도등 8개시·도의 제2부시장과 제2부지사 직제가 없어지며▲비상대책담당관이 민방위국에 통·폐합되며▲강원도를 제외한 각도청의 산림국이 폐지되고▲부군수제는 앞으로 결원이 생길경우 보충을 하지않는 방법으로 점차 폐지한다는 것이다.

서울市 제2부시장자리가 폐지되고 본청(경찰국 소방본부제외)을 15국에서 10개국으로 줄였다.
또 기획관리관, 감사관, 문화공보관, 비상계획관중에서 비상계획관이 없어지고 시정연구담당관, 새마을담당관, 도시계획담당관등 3담당관중에서 시정연구담당관은 폐지하는 대신 2개담당관은 남기고 투자심사관자리를 신설키로했다.
이와함께 업무직급은 상향조정, 1급인 제1부시장을 차관급으로, 이사관자리의 기획관리관을 1급인 기획관리실장으로개편하고 1급자리인 종합건설사업소를 신설, 시립 종합운동장건설본부와 서울대공원건설사업소의 업무를 맡아서 하기로 했다.
또 17개 구청의 경우 민방위국을 폐지하는 대신 예산및 감사업무를 맡을 재무국을 신설하고 西大門등 8개구청에 도시정비국을 신설, 건설관리국이 맡아하던 업무를 분담, 처리토록 했다.
본청의 국중에서▲재무국·세무국▲공원녹지국·환경국▲수도국·하수국▲주택국·건축국·도로국을 각각통합, 1개국으로 만든다. 이로써 서울시본청은 4관15국 1본부 3담당관에서 3관10국 1본부 2담당관으로 기구가 크게 축소됐다. 이밖에 공석으로있던 지하철본부차장자리도 없어지게 됐으며 서기관의경우는 본청에서 모두 77개자리에서 59개로 줄어들게 되지만 구청의경우 도시정비국장자리 8개가 늘어 일선행정을 강화토록했다.

지방자치단체 직급별(서울시 제외) 축소정실례를 보면▲2급(제2부시장·제2부지사급)이 7명(현재 이사관5명, 부이사관2명)이고▲3급이 2명▲4급이 24명▲5급(사무관)이 46명으로 모두 79명이 포함된다.
또 기구별로는▲제2부시장(부산)이 1▲제2부지사가 6▲局이 12▲課가 48▲비상대책 담당관 12자리가 각각 줄어 결국 局은 현재의 99개局에서 87개局으로, 課는 4백53개課에서 4백5개課로 줄었다.
이에따라 전국시·도의 기구는 평균8局37課에서 7局32課로 1局5課씩 줄었다.
이를 시·도별로 보면▲부산시는 10局43課에서 상공국과 교통국이 상공운수국으로 통폐합됐고 비상대책 담당관이 줄어 9局41課가 됐으며▲大邱는 9局42課에서 교통국을 도시계획국으로, 주택국을 건설국으로 합치고 민방위국이 신설돼 9局39課가 됐다.
또▲仁川市는 7局38課에서 민방위국이 신설돼 8局38課로▲경남은 10局42課에서 수산국이 식산국으로, 개발국이 건설국으로합쳐져 7局35課로▲전남은 9局40課에서 산림국이 농정국으로, 수산국이 식산국으로 합쳐져 7局34課로▲제주는 6局26課에서 관광국이 개발국과 합쳐 관광개발국으로 통·폐합, 5局23課로 각각됐다.

市·道敎育委 전국13개 시도교육위원회중 서울과 부산시교육위원회에만 부교육감제를 그대로두고 나머지 시·도교육위원회의 부교육감제는 폐지키로 했다.

"秋穀價 농민위해 最大노력"

국회 10個常委 질문답변

"低質炭 부당이득 32億"

국회는 26일 外務·國防·商工등 3개常委를 제외한 10개常委를 일제히 개회, 소관부처별로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法司委 李鐘元법무장관은 저질연탄 사건 수사에 언급, 『9개연탄업자들이 저질연탄제조로 취득한 不當利益額은 32억1천4백60여만원』이라고 밝히고 不當이득금 32억여원은 法테두리내에서 관계당국이 환수조치를 취할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不當이득금의 算出근거에 대해 『정부의 허용熱量기준인 4천3백70칼로리와 문제된 저질연탄의 평균열량 이 4천2백50칼로리와의 熱量차이에서 온 연탄 個當부당이득금 2원42전과 9개업체에서 금년1월부터 9월말까지 생산판매한 저질탄 13억2천8백여만개를 곱한 액수』라고 밝혔다.
李장관은 『당초 검찰의 수사초점은 저질연탄제조행위와 공직자의부조리였으나 이 부당이득금이 사회적으로 논란의 대상이되고있어 정확한 부당이득금을 조사토록 검찰에 지시, 總額을 산출해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民·商法개정작업에 대해 『지난6월 개정연구반을 구성, 현재 작업중이며 82년말까지 개정안을 확정발표하겠다』고 말하고 특히 『民·商法개정 연구반이 도출해낸 문젯점은▲民法의 경우 54개부문에 1백7개조의▲商法의 경우 99개부문에 1백80개조항등 모두 1백53개부문 2백87개조항』이라고 밝혔다.

農水産委 高建농수산장관은 秋穀收買價결정에 대해 『지난23일의 국회經科·農水産委합동 徹夜회의결과 정부내에서 收買價를 다시협의하는 분위기가 이뤄졌다』고 밝히고 『다시협의하는 자리에서 농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糧穀管理 특별회계및 赤字에 대해 『현실적 해결방법이 강구되어야하며 원인별로 赤字해소를 위한 대책의 기본계획을 수립중』이라고 말하고 『米穀의 低價放出에 따른 필요부분은 일반회계로 補塡받는 방법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숨진 辛敎師남편등 全대통령招致 오찬

全斗煥 대통령은 26일 낮 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학교실유리창을 닦다 떨어져 숨진 故辛英順교사(서울 聖水국민학교)의 남편 朴大圭씨(42)와 聖水국교의 都太永교장(52) 尹漢錫육성회장(38)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하며 故辛교사의 높은뜻을 기렸다. 【사진】

秋穀값 15%이상 引上촉구

與野 政府,收買量확대 난색

民正·民韓·국민당과 議政同友會는 26일 금년秋穀收買價를 10%線에서 引上, 6백만섬을 買入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농민의입장에서 도저히 수긍할수 없기때문에 15%정도로 上向조정해줄것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民正·民韓·국민등 3黨의 사무총장과 원내총무 議政同友會회장등은 이날 상오 플라자호텔에서 申秉鉉부총리와 李承潤재무 高建농수산장관등과 간담회를갖고 15%정도로 재조정할것을 요구했는데 정부측에서도 충분히검토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참석자가 전했다.
民正黨의 權正達사무총장은 올해物價억제선 16~18%선, 내년도 物價억제목표 12~14%를 고려할때 15%線은 올려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民韓黨의 高在淸총무도 최소한 15%이상을인상하고 收買量도 8백만섬으로 늘려줄것을요구했으며 국민당의 李東鎭총무도 농민의增産의욕을 고취시키기위해서는 23%線은 引上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申부총리는 『농민의 사정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李承潤재무장관은 『1백만섬을 수매하는데 1천억원이 든다』며 收買量확대에 難色을 표했다.

"公害업소 賦課金制로"

保社委 朴俊圭환경청장은 『公害예방조치에 대해 배출업소에 부과금을 물게하는 제도를 신설하기위해 법개정을 검토중』이라며 『이 부과금은 전적으로 공해방지사업에 투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경오염이 현저한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토지이용이나 시설설치에 제약을 주게되므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중을 기해야할것』이라고 대답했다.

文公委 李奎浩문교장관은 『교육의 목표를 實業직업교육에두고 實業교육의 充實化를위한 기초작업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實業교육충실화작업으로▲農高에 농업기숙사를지어 농업생활교육을 강화하고▲水産高에 선박(實習船)운영비로 9억6천만원을 처음으로 책정하고▲70개商高에 9억원을 투입, 컴퓨터시설을 갖추며▲工高에 장학금6억원을추가計上했다고밝혔다.
李장관은 또 농어촌과 도서벽지등의 지나친 零細학교를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며 도시에서는 작은규모의 학교가 교육의 實效性을 보이고있는점을 참작, 「미니학교」를 세우는 구체안을 마련중이라고 아울러 밝혔다.
그는 또 국민학교에서의 외국어교육은 인격의 정체성(正體性)이 혼돈을 가져오지않고 시설과 여건이 갖춰지는 한도내에서 가르칠생각이며 전국민학교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李장관은이와함께 高校·大學입시에서 외국어 말하기·듣기는 高校·大學入試가 대규모, 객관적지식평가를 필요로하는점에서 당분간 이를반영할생각이 없다고강조했다.

"舊正 公休日지정안해"

現代建設 내년중公開

金총무처 답변

金容烋총무처장관은 26일 국회내무위에서 舊正공휴일지정을 물은 金容大의원(民正)의 질의에대한 답변을통해 『祖上傳來의 美風良俗과 전통문화는 계승돼야 하지만 舊正은 우리가처한 시대적상황과 앞으로 전개될 역사의 흐름을 고려할때 공휴일로지정하는데는 많은 문젯점이있다』고 말하고 『따라서 舊正을 공휴일로 할수없다』고 못박았다.

올都賣物價16~17%

財政委 李承潤재무장관은 26일 『금년말 總通貨 증가율은 25%선으로유지하면서 4·4분기에 4천2백억원을 공급, 모두 1조2천5백억원의 民間與信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9월말현재 재정收支의 赤字는 4천8백73억원이며 연말까지는 7천7백억원정도가 될것이라면서 『금년도 물가상승률은 도매물가는 16~17%, 소매물가는 17~18%로 예상된다』고말했다.
李장관은 또 現代建設의기업공개와 관련, 『現代建設측은 82년도 하반기중·기업을 공개하겠다는 사실을 통보해왔다』면서 『금년도에는 국내경기와 해외시장사정등으로 공개가 늦추어졌다』고 말했다.

50坪이상도 陽性化

建設委 金周南건설장관은 무허가 건물陽性化立法案과 관련, 『50평이상의 무허가주택도 陽性化시키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50평이상의 무허가건물은 전체의 0·9%에 불과하여 여러세대가같이 살고있어 호화주택으로는 볼수없는것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50평이상의 무허가건물을 陽性化할때에는 일반무허가건물보다 과태료를 더 징수, 주민편의시설을 위해 쓰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金장관은 제2製鐵立地로 선정된 牙山灣을 재조사한데대해 『潮力발전소 立地로 이용하는것이 더중요한지를 알아보기위한것』이라면서 『당초 光陽灣도 재조사했으며 두곳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제2製鐵立地에 관한 최종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국민淨化운동 전개"

稅務등 不條理척결계속

◇安武赫정화위원장

사회정화위원회는 82년에도 도시행정과 稅務, 경찰등 공직사회의 殘存不條理를 파악, 정화작업을 계속하고 새로운사업으로 고발정신의 함양과 商去來질서의 확립, 직업윤리의식의 高揚등 국민운동을 전개할방침이라고 安武赫위원장이 26일 밝혔다.
安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성세대의 정화작업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2세들에 대한 윤리, 질서의식 함양이 더욱 중요한만큼 국민학교와 중등교육분야에서 內申制를 둘러싼 교육부조리가 고개를 들고있음이 판단돼 이분야에 대한 계몽과정화작업에도 착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에도 지금까지해온 사회病理현상을 정확히 진단하는 체제를확립하고 국민운동차원에서 사회질서확립운동을 전개하는한편 청탁배격운동의 정착화, 건전한 휴가보내기 운동을 계속 펴겠다』고 밝혔다.
사회정화위는 공직자의 기강상태와 일반사회정화상태에대한 淨化動向을분석한결과 중앙관서의경우 外形的인 非理의 감소와 有關업체와의 거래나 상납, 情實인사가 상당히 감소되는등 정책부서의 정화작업은 정착단계에 와있으나 집행부서나 利權부서에는 뇌물행위가 아직 남아있으며 認·許可집행때 謝禮하는 행위도 있다고 밝혔다.

波、파업에 軍投入

특수부대 2천여邑등에 進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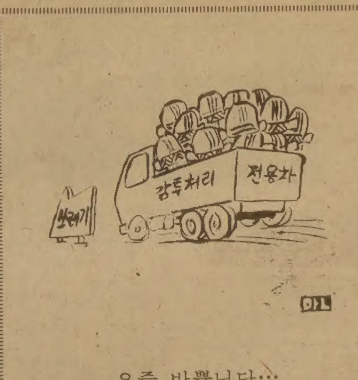
【바르샤바26日AP聯合=特約】 지방노동 분쟁해결을 지원토록 정부로부터 명령받은 폴란드 특수군부대들은 26일 2천개의 소도읍및 촌락으로 투입되기시작했다.
스타니스와프·치오세크노조담당상은 閣議가 노동자들의 파업종식을 요구하면서 자유노조가 파업의총구를 정부뿐아니라 전체사회의 관자놀이에 겨누고 있다고 비난했다.
행정장관인 타데우즈·후팔로프스키장군은 特殊軍병력투입에관해 『지역별분규해결을 지원하기 위한것』이라고 밝히고 『특별한 상황은 특별한 조치를 필요로한다』고 덧붙였다.

【바르샤바25日UPI聯合】 근30만명의 폴란드노동자들은 25일 당국의 軍투입경고에도 불구하고 식량위기에항의, 국내49개성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일째파업과 파업위협, 공장폐쇄, 공장점거등의소요사태를 계속하고있으며 폴란드당국은 자유노조원 7명을 反국가활동혐의로 기소, 정부와 노조간의 대립이 날카로와지고있다.
이와함께 자유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는 이날 바르샤바에서 자유노조 바르샤바지부위원장 얀·쿨라즈와 식품분배및 對정부협상방안등에 관한 『극히 중요한 회담』을 했다고 자유노조대변인이 밝혔다.

【바르샤바26日UPI=聯合】 폴란드정부는 25일 노조위기로 혼란에 처한 지방행정을 지원하기위해 2천개소의 지방행정구역에 특수군 투입을명령한데이어 자유노조에 대해만약오는 28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당국은 결코 이를용인하지 않을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26日AP UPI=聯合】 와인버거 미국방장관은 25일최근 폴란드 정부의 對노조강경조처가 소련의 압력때문에 취해진 것이라고 비난하고 현재 폴란드 정부는 대민압제조치를 취하도록 소련의 강요를 받는「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社會漫評



요즘 바쁩니다…

地平線

銀行문턱이 높다는 말은 특히 은행에서 돈을 빌려는 사람들로부터 자주 듣는다. 융자받으려 은행을 찾는 사람은 자금이 달리는 사업가와 내집을 장만하려는 小市民등 대개는 어려운 처지를 타개하기 위하여 이를테면 궁여지책(窮餘之行)을 하는것이다.
▼이미 은행을 향하여 사무실 혹은 집을 나설때부터 풀이 죽어있을법한일이다. 풀죽은 자앞에는 나가려는 제집문턱마저도 높게 마련이다. 비슷한 상태는 예금통장을들고 돈찾으러 은행으로갈적에도 나타난다. 한푼 두푼 절약하고 모아서 이를 은행에 맡기러갈때의 발걸음은 충족감과 성취감에차서 마치 시위를 벗어난 화살처럼 날렵한데 반하여, 그 돈을 찾아써야할일이 생겼을때의 마음은 돈빌러 은행을 찾는 이의 발걸음보다는 덜하겠지만 그래도 무거울 것이다.
▼예금계에서 손님을 맞는 여행원이 어려운 내집사정을 꿰뚫어보는것 같아 면구스럽고 그렇게 찾아갈 돈이라면 애초에 맡기지말일이지 은행에 공연한 수고를 끼치는것같은 자격지심으로도 미안하다. 통장에 쌓아둔 돈이 줄어드니 그때문에도 뱃속이 편치못하다. 여행원 아가씨로서야 예금찾으러온 손님이라고 달리 대할리는 만무하겠지만 찾으러가는 사람의 마음은 이토록 복잡한것이다.
▼내년부터는 가계종합예금과 저축예금통장을 가진 사람은 돈을찾으러 꼭 은행에 가지않아도 찾아낼수 있는길이 열리리라 한다. 멀지않아 대도시 백화점과 슈퍼마키트등에 설치될 現金引出機앞에서 돈찾으려고 장사진을 칠광경이 벌써부터 선하다.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어떨는지, 차례를기다리는 사람들이 지쳐서 짜증은 안낼것인지, 그리고 이 기계앞에서는 새치기꾼이 없을 것인지, 두고봐야 하겠으나 거리의 은행인이 감정 없는 기계 덕분으로 은행원들은 격무에서 한숨놓고 돈찾는 이들의 마음도 약간은 가벼워진다면 이래 저래 새기계의 공은 클것 같다.
▼이른바 온·라인 시스템 덕분으로 예금자들은 어지간히 편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그간 이 편리한 온·라인제도를 악용한 사기한이 더러 있어서 사고를 당한 은행은 손해를 보았다. 제발 현금인출기를 상대로하는 범죄만은 절대 없어야하겠다. 그리고 이 새기계에 의한 거리의 은행제도로 은행점포의 혼잡과 격무가 줄어드는만큼 은행원들이 더 친절해지고 일보다 실속있게 한다면 감원 사태없이 은행보편화를 향하여 큰 발걸음을 내디딜수 있을 것이다.

한국일보

533·2361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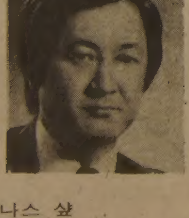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531-0277
한국관
연중무휴
AM11시 새벽1시
특별메뉴
●식욕을 돋구는
된장찌게정식
순두부찌게정식
생선찌게정식
민어매운탕
즉석불고기정식
즉석곱창전골정식
곰탕, 꼬리곰탕
입반죽 냉면
비빔냉면
회냉면
중국요리일절
결혼피로연, 환갑동창회
각종회의, 단체손님환영
※회의실 60석
성심 성의껏 염가로 봉사하겠아오니 왕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나옥녀 올림

◆알림◆ 한공편 지연관계로 모국판〈한국일보〉(제10153호)가 아직 도착되지 않았으므로 제10154호가 먼저 나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트로피
골프 프로샵
무나미
트로피
상패
메달
캐다록에서
50% OFF
각종 골프장비
세일
초보자 골프
지도해 드립니다.
— 트로피 & SPORTS —
이 기 훈
298-3584
880 ELLESMERE RD. UNIT 1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금주의 새 리스팅
●도나스 샾
①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9년(옵션가능). 현금 $250,000Down. 아스킹 $385,000
②주매상 $8,500. 렌트 $2,900. 리스9년+5년. 다운페이 $150,000. 아스킹 $295,000
③주매상 $6,000. 렌트 $2,650. 아스킹 $190,000(현금이면 기만불 디스 카운트. 리스20년
④주매상 $8,000이상(시외). 렌트 $1,700. 리스 19년. 현금 12만불 다운페이. 아스킹 $25만
버라이어티 ●
①주매상 $8,500. 리스9년+5년. 렌트 $900. 아스킹 11만5천달러(로타리오 인컴 월1000달러)
②주매상 $13,000. 리스9년. 렌트 $1,850. 아스킹 15만9천달러
③주매상 $7,000. 리스15년. 렌트 $950. 아스킹 7만5천달러(플라자 내)
주소 : 609 BLOOR ST. W.
B) 535-1251. R) 536-4250

세일즈맨
신 영 하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유럽全域 최대 反核示威

런던·파리·로마등 60만명動員

◇유엔의날맞아 反核평화행진 — 유엔창설기념일을 맞아 6천여명의 군중이 24일 스톡홀름시에서 反核평화행진을 벌이고있다。【스톡홀름24日AP=聯合】

美의 核武器배치 抗議
"히로시마·나가사끼의悲劇 再現불원"

【런던·파리5日AP·UPI=聯合】유럽전역에서 反核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가운데 2주전 서독에서 25만명이 참가하는 戰後최대규모의 反核시위가 벌어진데이어 주말인 24일과 25일 런던 파리 로마 브뤼셀 스톡홀름등 西유럽의 주요도시에서 50만~60만명의 反核평화주의자들이 東·西군비경쟁과 미국核무기의 유럽배치계획에 반대하는 대대적인 反核두시위를 벌였다。

西歐자유진영에서 反核시위가 벌어진것과 때를같이해 東獨의 포츠담市에서는 5만명이상의 시민들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유럽배치核무기현대화계획에 반대하는 데모를 벌였다고 東獨관영통신이 전했다。

24일 캐스퍼·와인버거 美국방장관의 영국방문에 때맞춰 런던에서 벌어진 反核시위에는 전국각지에서 상경한 15만~20만명이 참가、『核무기없는 세계평화를』『히로시마와 나가사끼의 비극이 재현되는것을 원치않는다』『核탄이아닌 직업을 원한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3시간에 걸쳐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蘇의 SS20 西歐배치 撤收않는한 核配置계획 파기못해

레이건行政府 거듭확인

【워싱턴24日=聯合】레이건 美행정부는 24일 서구동맹국 사이에 反核감정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소련이 서구를 향해 배치한 SS20 미사일을 전면철수시키지 않는한 미제중거리미사일의 서구배치계획을 결코 포기하지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무성관리들은 미국이 최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핵기획그룹 회의에서 서구가 미제미사일 배치계획을 포기할수도있다는데 마지못해 동의했다고전하고 그러나 이는 소련이 서구를향해 이에배치한 SS20미사일을 전면철수시킨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될경우에만 실현된다는 단서가 붙어있다고 강조했다。

헤이그 美국무장관은 당초 서구를향해 배치된 SS20미사일전면철수및 이에 상응하는 미제미사일 서구배치계획의 포기를 내용으로하는 이른바『제로·옵션』을『터무니없는 계획』으로 일축했으나 서구의 反核감정이 날로 격렬해지자 워싱턴이『이상적 조건하』에서 이를 검토할수도 있다고 말한바있다。

生命工学時代를 산다 <1>

—「遺傳子操作」의 技術혁명·産業化의 충격

DNA旗手「시터즈社」

再生抗體찾아 DNA 접합
불을보듯 확실 83년엔 量産
"30년以内 결판…20세기 후반을 바꾼다"

【샌프란시스코灣(DNA계곡) 26日 로스앤젤레스支社=鄭逸和기자】30분간의 인터뷰약속을 받고 시터스(CETUS)社 인터페론개발책임자 렌스·헌틀리씨를 만났을때 대뜸『DNA산업이 과연 성공하리라고보는가』고 첫질문을 던져보았다。

DNA기업중 주식이 공개돼 증권시장의 화제를 모으고 있는 지넨테크社와는 달리 비공개리에 자본을 키워가고있는 시터스社야말로 사실상 DNA산업의 기수다。

지넨테크보다 5년전인 71년 창설、그동안 미생물산업을 해오다가 73년 DNA이식조작법이 발견된후 급격히 연구방향을 DNA쪽으로 돌린 첨단과학기업이 시터스다。

비타민E、C、D개발과 합성연료생산연구로 쉘링제약、내셔널주조등으로부터 수백만달러짜리 계약을 따낸 시터스는 78년 DNA조작을 통한、인슐린생산에 성공했으며 79년에는 인터페론생산을 위한 계약을 쉘석유회사와 맺었다。

지넨테크가 인터페론인체실험을 이미 끝냈다는 소식에 대해 그는『두려워할것없다。

수십내지 수백종류의 인터페론이있으므로 우리가 차지할 몫은 얼마든지 있다』고 여유를 보이면서『우리는 지금 인터페론동물실험을 준비하고있다』고 말했다。

인터페론연구책임자 헌틀리씨는 이 동물실험이 끝나면 82년만쯤 인체투약실험을 끝내고 늦어도 83년초면 시터스연구팀이 만든 DNA생산품이 슈퍼마키트에 나갈것이라고 자신했다。『30년이내에 결판난다。시터스는 지금 IBM전자회사가 누리고 있는 것 만큼 각광을 받을뿐만아니라 시터스의 연구결과가 슈퍼마키트에 상품으로 나갈때쯤이면 20세기 생산체제도 웬만큼 바뀌어 있을 것이다』

그는 DNA산업이 1백% 성공할 것이며 20세기의 첫 후반을 IBM컴퓨터가 바꿔놓은것처럼 시터스의 DNA조작법은 20세기의 마지막 후반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칠판에 화학기호를 그려가며 차분히 설명해가는 헌틀리씨의 DNA혁명내용은 그렇게 복잡한것은 아니었다。

결국은 인체세포의 기능자체를 산업으로 돌린다는 것이다。

알렉산더·플레밍이 1928년「우연히」발견한 페니실린곰팡이는 1939년 페니실린주사약으로 현실화됨으로써 의학계에 소위「항생제혁명」을 일으켰다。인간의 세포에 침투하는 병원을 이길수있는 어떤 미생물이 존재하며 이를 찾아 약으로 만들수있다는 이론이 현실화한것이 페니실린이었다。

DNA배합조작법은 전혀 방법이다르다。인체는 어떤 병원이 침투했을때 이를 대적하는 항체를 어느정도까지는 자생할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는데 이자생된 항체를 찾아내어 항체의 DNA를 박테리아 DNA에 접합、인공적으로 항체자체를 만들어 인체에 투입한다는 이론이다。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병원도 이런 식으로 단번에 해결한다는 주장이다。농업의 경우는 씨를 개량하는것이 아니고 씨의 성질자체를 DNA조작으로 바꾸는것이된다。세포구조자체를 DNA조작으로 개조한다는이론은 아직은 과학세미나실정도에서나 무리없이 받아들여지고있지만 인체의항체를 박테리아를 이용해 어렵지않게 생산해낼때쯤에는 세포구조자체의 변경연구도 웬만큼 진전돼 있을법하다。

로스앤젤레스의 캘리포니아대학(UCCA)유전학교수 개리·윌록스박사는『인간의 세포조직을 바꿀만한 DNA배합조작은 아직 엄청나게 먼 단계로 남아있다』면서『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헌틀리씨는 유전학계의 선두주자위치를 차지하고있는 명문 버클리의 캘리포니아대학(UC버클리)에서 생화학박사학위과정을 밟던중 시터스실험실로 뛰어든 젊은과학도다。

그는 시터스社는 현재 사원에게 주식을 보너스 또는 싼값으로 배분해주고 있다면서 시터스의 성장전망은 박사학위를 팽개치고도 남을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시터스는 남미해안에서 잡히는 고래이름。사장 로널드·케이프가 이고래를 좋아하여 회사이름으로 삼은 것이다。버클리市의 밴크로프트와길을 따라 바닷가로 쭉나가면 숲속에 단층건물이 숨은채 하나서있다。그러나여기는 사실은 시터스사의 행정본부이고 실험실은 훨씬 남쪽의 알바니市바닷가에 있다。

겉보기에는 허름한 창고같은 넓따란건물。그속에 한칸건조하는데 1천만달러가 들었다는 잠수함선실모양의 DNA실험실이 즐비하게 들어서있었다。B·서틀리스박테리아배양실、인터페론DNA분리실、인슐린DNA처리실등。

신비한 실험과정들을 엿볼수 있었다。사장의 취미에 따라 그렇게 꾸몄다는 잠수함모양의 실험실 위층에는 역시 고래장식들이 이곳저곳에 붙어있는 커다란 홀이 하나 있다。시터스는 이 홀에서 매월 둘째주말(금요일)과 네째주말에 전사원 맥주파티를 연다는 것이다。마침 10월 둘째주말 오후여서 홀에는 DNA산업최첨단의 과학자들이 군데군데 모였다。그속으로 안내자는『우리는 불을보듯 확실한 20세기후반의 혁명을 이끌고 있는데 대한 축배를 들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페론 實驗과정 — 시터스社의 인터페론 실험과정을 헌틀리씨가 설명해준다。【LA支社=朴世勳기자찍음】

카이로서 流血사태

埃、쿠데타관련 4百명 拘束
警察·回教과격파 총격전

【카이로25日AP=聯合】지난23일부터 카이로시내일원에서 경찰과회교과격분자들간에일련의 총격전이 벌어져 회교광신도 1명이 사살되고 경찰수명이 부상했다고 이집트내무성이 25일 발표했다。

이집트내무성은 또한 故사다트前대통령암살후 쿠데타음모를 꾸민 지하회교단체 소속단원 3백9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美、대규모테러團 적발

주요 地下左翼단체 모두 가담

【뉴욕24日AP=聯合】美연방수사국(FBI)은 24일 美國내 주요좌익지하단체 전부가 가담된 테러음모를 적발해냈다고 발표했다。

켄·월튼 FBI차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고 미국의 좌익테러음모가 외국과 관계를 갖고있는지 여부는 아직 조사를 벌이고있다고 밝혔다。

FBI의 이날 발표는 지난20일 현금 1백50만달러를 운반하던 장갑운송차에 대한 게릴라들의 불법습격이 발생한후 이뤄진 4일간의 가택수색끝에 나왔다。

FBI와 경찰은 현재 매우 위험한 인물로 지목된 탈주자 4명의 체포를 위해 전국적인 수사활동을 벌이고있다。

월튼차장은 또 美國에 테러분자의 하부조직이 있다는 확고한 증거를 갖고있다고 덧붙였다。

"中共근대화에 數10年필요"

鄧小平、IMF專務理事와 會談

【北京25日AP=聯合】중공이 현재의 경제적 저개발상태를 극복하는데는「수십년」이 걸릴것이라고 중공의 실권자인 부수상鄧小平이 25일 밝혔다。

鄧小平은 이날 중공을 방문중인 자크·드·라로지에르 국제통화기금(IMF)전무이사와의 회담에서 중공의 인구가 10억이라는점을 지적、중공이『경제적 후진성을 극복하는데는 수십년간의 힘든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영 新華社통신은 鄧小平이 라로지에르 전무이사에게 中共의 정치·경제상황을 설명하고 中共과 IMF간의「원만한 협력」에 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미스·월드 참가중인 李한나孃 — 미스·월드콘테스트에 참가중인 미스·코리아 李한나양(左)이 마이애미·비치 폰테인블린·힐튼·호텔풀장에서 미스·싱가포르 수실·산티양(右)및 미스·말레이지아 신티아양(中)과 포즈를 취하고있다。【마이애미·비치25日AP=聯合】

中共文革때 2千만死亡

【홍콩24日=聯合】지난60년대 중후반의 中共문화혁명기간중 당시 국방상 林彪및 4인방의 박해와 홍위병의 잔학행위로 사망한 희생자수는무려 2천만명에 달했다고 24일 홍콩의 明報가 중공의 권위있는 소식통을 인용、보도했다。

이신문은 中共黨 중앙위원회가 최근 전국29개省 자치구에 대해 문화혁명중의 희생자수를 조사하도록 명령했으며 이조사에서 나타난 피해자총수는 무려 6억으로、중공인구의 60%에 달했다고 말했다。

中共黨은 이미 문화혁명을「黨과 국가및 人民에 대한 대재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같은 방대한 희생자를 낸 이유는 문화혁명이 하나의「내란」적인 양상을 띠면서 전투기와 탱크등 중무기가 사용된데 있다고 이 신문은 말하고 이 희생자수도「아주 신중하게 계산된」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미비아產 우라늄輸入 蘇聯

【런던25日UPI=聯合】소련은나미비아산 우라늄을 영국을통해 수입、이를 농축하여 영국에 공급함으로써 나미비아에 대한 南아프리카공화국의 불법점령이 계속되는 한이지역의 우라늄처리를 금지키로 했던 유엔결정을 위반해왔다고 영국의 업저버가 24일 보도했다。

이신문은 소련의 한비밀우라늄처리공장이 영국에 공급할 7만파운드(3만1천8백kg)농축우라늄을 처리하고있다고 밝히고 이우라늄의 일부분은 영국을 통해 도입했던 나미비아산 우라늄이라고 주장했다。

海外토픽

WP紙 提訴않기로
★카터、도청설報道사과받아

카터前美대통령은 24일자신의 백악관 블레어하우스 도청설을 보도한 워싱턴·포스트紙의 사과를 받아들여 同紙에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지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카터前대통령은 자신의대변인 조디·파월씨를 통해 기자들에게 발표한 2페이지의 성명에서 도널드·그레이엄 포스트紙발행인이보낸 사과서한이『비록 늦은것이기는하나 문제의 오보기사를 전면 취소하고 공개사과했으므로 문제를 더이상 확대하지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워싱턴=UPI】

★駐蘇 美大使의 애완용 앵무새 3國語구사

아더·하트먼 신임駐蘇美대사의 애완용 앵무새인 사이가 모스크바외교가에서 가장『말많은 외교관』으로 등장했다。

하트먼대사는 지난16일 아내인 도나여사와 외에 주불대사시절 파리에서 산 30cm키의 초특색 앵무새를 데리고 모스크바에 도착했는데 당시 사이는 프랑스국가의 첫 8줄을 휘파람으로 불수있었다。

이제 하트먼대사는 사이에게 소련에서 흔히 들을수있는 노동계층의 혁명가를 가르치려 하고 있는데 이미 사이는「좋다」는 뜻의「호로쇼」란 소련말도 할수 있어 최소한 3개국어를 구사하는 셈。사이가 이렇게 어학재능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미대사관은 호사꾼들의 전화를 받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방송국으로부터 회견요청을 하는 장거리 전화까지 받았다는 것。【모스크바=UPI】

中共輪禍 世界최고
1百km走行에 36명

중공은 1백50만대의 자동차를 가져 보유대수면에서는 세계 33번째에 불과하나 1백km주행거리당 36명의 교통사고 피해자가 발생하는 세계최고의 교통사고율을 보이고있다고 북경의 광명일보가 보도。

이 신문은 중공의 이같은 교통사고율은 인도의 26명보다도 높은것이며 일본의 4명 네덜란드의 3.7명 영국의 2.6명 미국의 2.1명과는 비교가 안될정도라고 강조했다。【北京=聯合】

◇日代父장례식에 몰려든 두목들 — 日本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1천여명의 암흑가두목들이 25일 고오베(神戶)에서 있은「日本판 알·카포네」로 日전국을 주름잡은 다오까·가즈오의 장례식에 참석하고있다。가즈오는 지난 7월 심장마비로 68세를 일기로 사망했다。【도오꾜25日UPI=聯合】

메아리

소동패 놀이

올해 22회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의 영예를 차지했던「현천소동패놀이」는 농경사회에 있어서의 공동작업인「두레」의 유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현천은 전남여천군소라면에 있는 자연부락으로서 여수 서북 12km지점에 있으며 국사봉을 주봉으로하는 아름다운 산에 에워싸인 두메마을이다。

오랜 전통을 지닌 이 마을은 5개씨족 1백40호의주민 1천42명이 아직도 지난날의 미풍 양속을 지니며 오순도순 살아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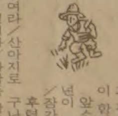
소동패란 남도지방에 넓게 분포되어 있었던 공동작업인 두레의 단위인、패조직으로서 20세이상 성년남자의 모임을 대동패라 하고 16세에서 17세 까지의 소년들 조직을 소동패라 했다。

이들 소동패의 놀이는 농악과 노래와 춤이 혼합된 종합적인 민속놀이로 풀베기、김매기같은 공동작업시에 고된 노동의 피로를 잊고 되려 그것을 흥겹게 하기위해 놀게된다。

소동패놀이는 대체로 3마당으로 나뉘게 되는데 첫마당은 조반소고를 울리면 모두 마을앞에 모여서 영기를 앞세우고 징소고를 치면서 김매기를 한다。

둘째마당은 대동패와 서로 마주치면 노래로겨룰것인가 힘으로 겨룰것인가를 결정짓고 진편이 이긴 편에게 영문정잘을 올려야 한다。

세째마당은 승패가 가려지고 의식이 끝나면 구마치 쇠가락에 법고춤이를 벌이며 흥겹게 노래부르고 춤춘다。



소동패놀이에서 부르는 논매기노래에는 다음과 같은 앞소리에 후렴을 여럿이 함께 부른다。

앞소리 〈이지심 밀어서/풍년이 들어야/우리집 큰아들/장가를 들이지/〉

후렴 〈애해야 뒤야/에해야 뒤여라/산아지로 구나/밀어라 당겨라/지심을 밀어라/나락폭 살찔까/조심히 밀어라/〉

후렴은 여느 노동요와 같이 똑 같으나 앞소리는 다양하여서 〈이지심 밀어서/풍년이 들어야/선영앞에 제사를/푸지게 푸지게 지내지〉와 같은 효성을 노래한것도 있는가 하면 다음 처럼 자연을 직관적으로 읊은것도 있다。

〈꽃은 웃어도/소리가 없고/새는 울어도/눈물이 없다〉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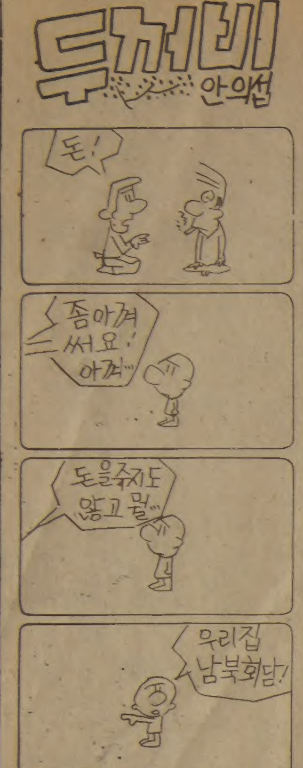
봉 학 농 장
안녕하세요.
김장철을 맞이하여 시내 전역에 직접 배달합니다.
(3 BOX이상주문)
※배추, 무, 파, 갓,
다꾸왕(왜무), 총각무등
☎: 1-775-6256
　　252-1570
(아침9시이전, 저녁7시이후)

감사의 말씀
고인되신 어머님을 위해 지난19일부터 사흘동안 불순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물심양면으로 참석, 지도해주신 여러분께 우선 지면을 통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 우
심 용 웅 배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5주년 기념 세일
⊙전자 CASH REGISTER
⊙각종 전기전자 계산기
⊙각종타자기
⊙금고, 책상, 케비넷
김 성 수
교포경력(TORONTO 15년 경력)
분납가능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 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30P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삼미떡집2층)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 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집전화 : (416) 222-9480

한국의 친척들중 카나다에 오시길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들을 당신과 당신가족을 방문케 해서 모셔오십시오. 동시에 우리와 같이 영어를 공부하게 하십시요.
1976년 이후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공부했읍니다.
보다 소식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전화하십시요.
Canadian Language Institute
728 Bay St. Toronto, Ontario
M9G 1N5 ☎: 598-0451



工場폭발(9月) 꽃사슴毒殺(6월) 관상수 千여그루 낫질도

금복주 社長집 사건 지난일도 申告안해

花園유원지買入때 怨恨수사

【大邱=盧基昌기자】금복주 金泥殖사장(55)집 폭발사건을 수사중인 大邱市部경찰서는 26일 이번 사건에 앞서 지난6월 金사장소유 花園동산(경북達城郡花園面本山유원지내)에서 사육 중이던 꽃사슴 5마리가 원인모르게 떼죽음당했고 지난 9월21일에는 신축중인 금복주 제2공장(大邱市北區魯院洞)에서도 폭발물 투척사건이 있었음을 밝혀냈다.

수사본부(金鳳鉉·大邱中部경찰서장)는 이 연쇄사건들이 모두 金사장과 원한을 가진자가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으로 단정, TNT등 강력한 폭약을 다룰줄 알며 금복주회사와 金사장의 내부사정을 잘아는 20여명의 용의자를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金사장이 花園동산 유원지 매입시 개발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 또는 그 구역내 묘지소유자들로부터 원한을 샀을 가능성이 많은것으로보고 유원지 개발 과정등을 집중조사하고있다.

경찰에 의하면 지난 6월23일께 경북達城郡花園面에 있는 花園동산의 꽃사슴 19마리중 5마리가 3일동안 연쇄적으로 숨졌다.

이들중 2마리는 밤에 죽어 독살의 가능성이 높았으나 花園東山측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고이틀전에 농약을 뿌린 배추를 먹여 숨진것으로 보고 K대 모교수에게 사인규명을 의뢰했었다. 이교수는 사슴에게준 배추를 토끼에 먹여보았으나 이상이 나타나지 않아 배추아닌 다른 독약에 의한 독살가능성에 대해 조사해보도록했으나 동산측은 흐지부지 넘겨버렸다는것.

또 지난9월21일 밤10시30분께 大邱市北區魯院洞3街183의1 금복주 제2공장 공병야적장에서도 폭발사건이 발생, 공병 7상자가 박살나고 블로크담장일부가 파손됐지만 경비원 金洙鵬씨(35)등 3명은 대수롭지않은것으로 여겨 신고를 하지않았음은 물론 회사간부진에게도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유원지관련 수사에서 지난77년 유원지내 관상수 1천그루가 낫으로 마구 잘려졌던 사실도 밝혀냈다.

경찰은 또 지난19일 범인이 보낸 협박편지가 花園東山인근인 月背面우체국소인이 찍혀있었고 지난6월의 사슴독살사건,또 이곳이 大邱시내와 직통전화가 가능한점등으로 미뤄 범인의 연고지가 花園을 중심으로한 지역일것으로보고 이일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있다.

◇金사장집 대문폭발사건전인 지난 9월21일 폭발물이 투척돼 (×표) 빈병 7상자가 깨지는등 피해를 냈던 신축중인 금복주제2공장 야적장.

◇지난6월 꽃사슴 5마리가 원인모르게 떼죽음당했던 金사장소유의 花園동산유원지내 꽃사슴 사육장. 【大邱=[illegible]기자찍음】

文敎部 百3개專門大 종합評價

運營나쁘면 廢校까지

문교부는 26일 전문대학의 교육여건및 운영실태파악을 위해 전국 1백30개 전문대학중 27개대학을 제외한 1백3개대학에 대한 종합평가작업에 착수했다. 오는 11월20일까지 실시될 이번 평가에서는 '7개반 40명의 평가위원이 ▲설립인가당시의 조건이행여부 ▲연구시설 도서관확보율 ▲재단측의 재정투자이행여부 ▲교원수요확보율 ▲교육과정의 적정한 편성여부등을 정밀조사하게된다.

문교부는 종합평가결과 평점이 낮은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증원억제, 시정지시등 조치를취하고 운영상태가 지극히 불량한대학은 폐교조치할 예정이다.

꽃도매상
437
CARLAW ST.
☎465-8167

海洋오염 局番에 5050번 申告전화

釜山·仁川·木浦등

정부는 24일 바다에서의오염물질확산을 신속히 막기위한방안의 하나로 해양오염신고용 전화번호로 5050번을설정, 운용키로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釜山·仁川·木浦·東海등 각항구도시에서는 시민들이 선박의 기름유출·오물투기·산업폐기물배출등에의한 해양오염을 목격했을경우 전화局番과 5050(局番이 없는경우는 5050만)을 돌려 신고하면 즉각 현장에 해경이 출동, 오염물질 확산방지및 수거등 신속한 방제활동을펴게된다.

각항구도시별 해양오염신고용전화局番등은 다음과같다.

▲仁川·群山·麗水·東海=②5050 ▲束草=국번없이5050 ▲釜山=㊻5050 ▲濟州=③5050

出監후 工場사업資金달려 소매치기 또「開業」

두목등 4명拘束

소매치기 전과자가 공장을 경영하다 자금이부족하자 다시 소매치기단을 조직, 범행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시경은 26일 백따기전문 소매치기단 만태파 일당 7명중 두목 金만태(39·전과8범·서울西大門區冷泉洞75의59) 일꾼 李창욱(24·전과3범) 바람잡이 朴永吉(24·전과3범)등 4명을 특수절도등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일꾼 일명 영보(37)등 3명을 수배했다.

경찰에따르면 두목金은 지난2월 교도소에서나온후 서울恩平區鷹岩2洞에서 세탁가공·공장을경영하다 자금이 달리자 지난9월20일 모다방에서 만태파란 소매치기단을 조직, 지난21일 하오8시쯤 서울中區乙支路2街148앞 버스정류장에서 李淑美양(22·한국과학기술원 근무)의 핸드백속에서 5만원짜리 자기앞수표와 현금12만원등 27만여원 상당을 절취한것을 비롯, 31회에 걸쳐 5백10만여원의 금품을 소매치기한 혐의다.

한국일보 詩壇

허수아비

김 준

차라리 빈 몸으로
自失한 채 홀로 서다。

외롭고 슬프기야
기약없는 세월인데
팔벌려 구름을 잡듯
의미 바랜 祖上遺業。

간간이 찌는 햇볕
所望이 들에 차다。

치렝은 하늘 향해
바람따라 춤을 추면
도리어 벅찬 이 孤獨
海溢되어 쌓이다。

애타던 나의 젊음
어디에 부렸을까
다 거둔 빈 이랑에
메아리만 짊고 서서
내일은 또 어떤 出發로
充滿해야 하는가。

한국版 디즈니랜드 建設붐

올림픽 誘致따라 大企業 앞다퉈

綜合레저타운 4~5개 計劃

가족단위 慰樂시설·靑少年 산敎育場등

디즈니랜드 건설붐이 불고있다. 최근 일기시작한 레저산업붐을 타고 고개를 들기 시작한 디즈니랜드구상은 88올림픽 서울개최결정을 전후해 표면화되기 시작, 4~5개가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게될 전망이다. 「한국형」임을 강조하는 이 디즈니랜드들은 미국·일본등 선진국의 디즈니랜드, 패밀리랜드, 포토랜드와 같은 종합레저타운으로 규모는 약간 작으나 한국적인 전통문화고유의 특성을 살린다는것이다. 이에대해 관광업계는 『새로운 관광명소를 개발하는것에 원칙적으로 찬성이나 내용이나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세워졌으면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시민들은 『기존 관광자원도 충분히 활용을 하지못하는 실정인데 디즈니랜드가 한꺼번에 여러개 생기는일은 선후가 뒤바뀐 느낌이다』면서 『인근에있는 기존 관광자원도 함께개발했으면 한다』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한다.

현재까지 표면화된것은 극동건설이 경기도城南市에 서울패밀리랜드를, 명성그룹이 경기도楊平에 올림픽레저타운을, 慶州관광개발공사와 三洲개발이 합작으로 普門단지부근에 普門대공원, 미륭건설이 강원도襄陽에 南涯랜드를 각각 건설한다는 것.

이들기업들은 모두 부지를 확보, 마스터플랜을 이미 세워놓고 당국의 사업승인만 기다리고있는데 인가가 나면 내년부터 일제히착공할 태세다. 이밖에도 명성그룹이 지난5월에 이미 束草市에 雪嶽종합레저타운을 착공, 건설중에있고 華嚴寺-노고단간의 케이블·카 설치와 콘도미니엄을 건설하는 한편 智異山레저타운과 제주도北濟州郡涯月面에도 레저타운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같은 기업들의 대단위레저타운건설붐은 80년대 관광산업을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완전히 전환시킨다는 정부의 방침과 88년 올림픽개최를앞두고관광자원의개발이 시급한 실정이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지원혜택이 뒤따를것으로 내다보고있기때문이다. 또 대기업체들마다 최근 선진국에서 레저산업이 호황을 누리는등 각광을 받고있어 나름대로 장기투자대상으로 구상을하고 있는데 대도시 주변에 위락시설이 별로없는 실정이고 올림픽개최를 전후해 현재관광객1백만명선(연간)에서 3백만명으로 늘어날것으로 보고 일단 레저타운을 갖추어놓으면 수요는 충분할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패밀리랜드 城南 올림픽레저 楊州 普門團地대공원 慶州 南涯랜드 江原 襄陽

교통부는 이미 사업승인서를 제출해온 서울패밀리랜드(극동건설)와 普門대공원(三洲개발)에 대해 오는28일 尹子重교통부장관이 해외에서 귀국하는대로 허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패밀리랜드 극동건설이 경기도城南市石雲洞일대(果川부근)부지 43만평을 확보, 2백50억~3백억원을 들여 가족들이 함께 즐길수있는 각종위락시설을 꾸민다. 사업승인이나면 82년6월께 착공, 87년까지 3차사업으로 나누어 완공할 계획.

시설내용은 민속촌, 동·식물원, 청소년회관·3천명수용능력의 수영장, 수중발레관, 파도풀, 회전극장, 루트코스타(원심회전궤도열차), 제트코스타(공중회전열차), 패러슈트타워(낙하산타기)등 30여가지의 유기시설을 갖춘다. 수용인원은 10만여명.

普門대공원 慶州普門호수부근의 三洲도투락목장일대 60만평에 三洲개발과慶州관광개발공사합작으로 3백50억원을 투자, 건설한다. 82년에 착공 86년까지 3단계사업으로 추진되며 예산도 자기자본60% 융자및 외자도입40%로 충당된다.

가족단위 공원으로어린이·청소년들에게 민족의얼과 선조들의 문화예술을 접할수있는 산교육장으로 만드는한편 꿈과 낭만을 심어주는 유기시설을 갖추는데에 역점을둔다는것.

시설내용은 전통문화및교육센터(3만평)에 민속관, 자연전시관, 전통문화관, 과학관이 들어서고 동물원(9만평)에는 사파리장, 해양수족관, 동물쇼장을 만든다. 유희및운동시설(13만평)로는 회전열차, 회전목마, 급류미끄름대, 회전비행기등 30여종과승마·수영·야구장도 들어선다. 또 축산·농림사업장(27만평)에는 관광목장, 동물번식장, 묘목장, 과수농원을 꾸민다.

올림픽레저타운 明星그룹이 경기도楊平일대(용문산과 北漢江邊) 4백만평의 부지를 매입, 대단위레저타운을 건설할계획. 시설규모는 대규모민속촌(60만평), 민속도예촌, 민속관등을 건립, 전통문화를 소개한다. 어린이들을 위해 태풍열차, 폭풍열차, 회전목마등 놀이시설14종, 요술의집, 명작동화의집, 萬國村(세계각국의 풍물소개)등 보는시설도 15종을 갖춘다.

雪嶽레저타운 明星그룹이 束草市長砂洞일대 52만평에 종합관광지를 꾸미기위해 지난5월23일착공,오는12월1차사업을 완공한다. 투자액은 콘도미니엄2백10억, 호텔98억, 휴양지시설78억, 골프장32억등 4백여억원. 휴양지에는 스키장, 민속도예촌(10만평), 각종모노레일열차 청소년대광장, 행글라이더활강장, 요트장등이 들어선다.

南涯랜드 미륭건설이 강원도襄陽郡현남면 南涯里에 있는 현재南涯해수욕장을 중심으로 1백50만평에 바다를 낀 국제적인 레저타운을 세운다. 【林承茂기자】

大邱 聖光高 수년간 巨額찬조금

3백여명 不正편입학

1人當 최고 3백만원받아

【大邱=聯】大邱 聖光고등학교가 지난 수년동안 거액의 찬조금을 받고 금년신학기의 10여명을 포함, 모두 3백여명의 학생들을 부정으로 편입학시킨사실이 관계당국의 감사로 밝혀졌다. 26일 大邱시교위에 따르면 성광고교(교장 李圭元)는 지난75년부터 매년 평균 30~40명씩 금년신학기까지 학생1인당 30~3백만원의 특별찬조금을 받고 모두 3백여명을 부정편입학 시켜왔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聖光고교에서 지난10년동안 교사로 재직해오다 학교측의 종용으로 지난3월 퇴직한 K모교사의 부인 李모씨의 투서에 따라 문교부와 大邱시교위의 합동감사반이 21일부터 정밀감사를 펴 밝혀낸 것이다.

주야간 60개학급인 聖光고교는 大邱시내 연합고사에서 떨어져 지방학교로 나간 학생들을 주야간에 각각 편입학시켜 왔는데 감사착수 6일째인 이날현재 부정편입학생수가 3백여명에 이르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는 가운데 최종 확인작업이 계속되고있다.

金容大 大邱시교육감은 성광고교의 부정편입학생수는 앞으로 2일정도 더소요될 감사가 완전히 끝나야알 수있을것같으며 학교측에 대해서는 감사종결뒤 적절한조치가 내려져야할것이고 부정편입한학생들은 학교측에 구제되어야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聖光고교 李교장은 현재 감사가 진행중이므로 무엇이라고 말할수없으며 지난해 8월20일이전의 사학비위사실은 일체 불문에 붙이겠다는 문교부의 사학운영쇄신지침에따라 과거의 부정사실이 사면될수도 있을것같다고 밝혔다.

朴大統領서거 2周忌

官·政界인사 銅雀洞참배

◇26일하오6시 城北洞자택에서 거행된 朴대통령 2주기 기제사。군복차림의 아들 朴志晩소위가 분향하고있다。

26일로 故朴正熙 대통령이 서거한지 2周忌를 맞았다。

이날상오 서울동작동 국립묘지의 故朴대통령과 陸英修여사 묘소에는 南悳祐국무총리 申秉鉉부총리겸 기획원장관 崔侊洙체신 盧泰愚정무제2장관 金復東육사교장 金鍾哲국민당총재 朴順天여사 李厚洛씨등과 故朴대통령의 조카인 朴在鴻의원(民正)을 비롯한 官界·政界인사, 친지들이 참배,고인을 추모했다。

한편 朴槿惠·槿暎양과 志晩군등 유족들과 천지들은 이날 하오6시 서울城北區北洞 집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간소한 기제사를 지냈다。

朴槿惠양은 이에앞서 일요일인 25일 하오 故朴 대통령 내외의 묘소를 찾아 분향했으며 丁來赫국회의장 文亨泰 申東寬씨등도 이날 묘소를 참배했다。

越南귀순 裵丙官씨 歡迎대회서 講演도

자유의 투사 裵丙官씨(32)를 위한 서울시민 환영대회가 26일상오10시 서울世宗문화회관에서 朴英秀서울시장과 李種浩원호처장을 비롯한 각계인사 1천8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거행됐다。

한국 반공연맹 서울시지부(지부장 許伯)주최로 열린 이날 환영대회에서 朴英秀서울시장은 환영사를 통해『북한공산치하를 필사적으로 탈출, 자유대한으로 귀순해온 裵丙官용사에게 범시민적 뜨거운 환영과 격려를보낸다』고 전제하고『우리국민은 남침야욕의 망상에 사로잡힌 북괴에 대해 대공 경각심을 더욱 갖고, 반공의 굳은 안보적결의를 확고히 다져나가자』고 강조했다。

귀순용사 裵씨는 이자리에서 북한실정폭로강연을 통해『지금 북괴는 金日成·金正日부자체제아래 전인민을 혹사시켜가면서 전쟁준비에 광분, 남침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있다』고 폭로하고『金日成의 족벌체제에 반기를드는 북한주민의수가 점차 북한전역으로 확대되고있어 북괴·괴수들은 불안에떨고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花邊소식

建大生 菊花전시 뉴코아 쇼핑센터

건국대 농과대학생들이 가꾼 국화전시회가 31일까지 신반포 뉴코아·쇼핑센터에서 열리고 있다。이 전시회에는 6백여 화분이 출품되어있다。

플라워·디자인展 30,31일 롯데호텔

플라워·디자이너협회(이사장 徐守玉)는 30일, 31일 롯데호텔 에메럴드룸에서 지도자작품 전시회를 갖는다。수익금은 불우아동을위해 쓰여진다。

어린이 주말캠프 YMCA서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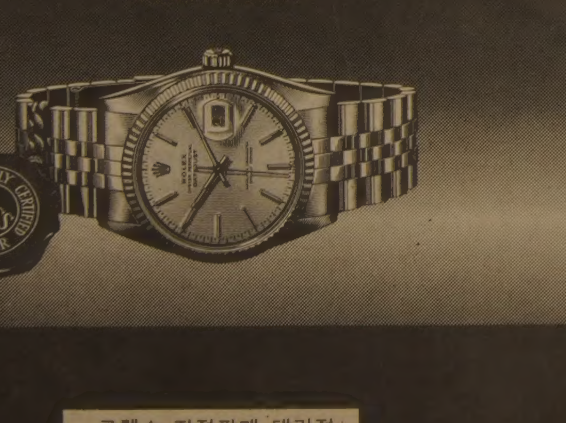
YMCA종로지회는 31일~11월1일 남이섬에서 어린이 주말캠프를 주최한다。국민학교 어린이는 누구든지참가할수있으며 29일까지 신청해야한다。문의전화㉒8229 1。

「홀트」자선음악회 29일밤 국립극장

홀트아동복지회를 돕기위한 음악회가 29일저녁7시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열린다。출연에 金福姬·金英煥·朴榮敏·李貞姬·金惠貞씨등 여류성악가 5명과 피아니스트 李成均·吳貞珠·康藍京씨。레퍼터리는 헨델·슈베르트, 드보르자크등의 가곡과 아리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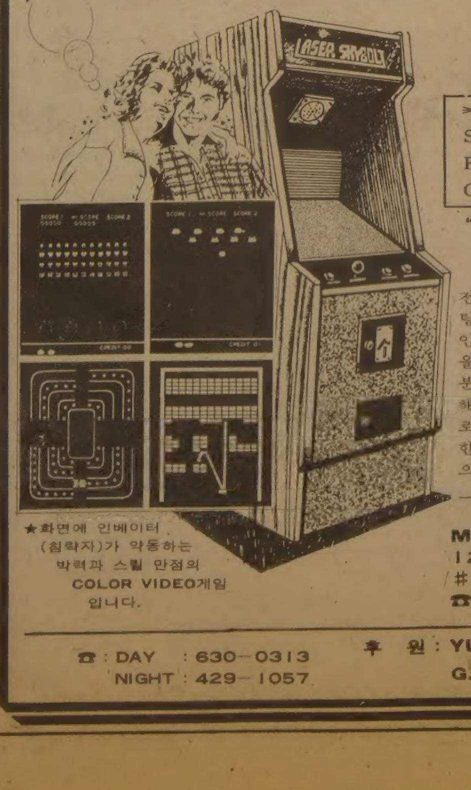
國語교육발표회

한국국어교육연구회 월례연구발표회가 28일 하오5시 경기여고에서 열린다。발표주제는 「국어교육과 의미론」(李乙煥·淑大)과 「국민교 읽기 문자지도의 새로운 방안」(朴勝鳳·서울師大附國)이다。

ROLEX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은하보석상
534-9977 534-7791

M & J INTERNATIONAL
IMPORTER & EXPORTER & DISTRIBUTER, VIDEO GAME & PIN BALL WHOLESALE LEASE RENT



★화면에 인베이더(침략자)가 약동하는 박력과 스릴 만점의 COLOR VIDEO게임 입니다.

취급품목 : SCRAMBLE, DONKY KONG, CRUSH ROLLER, SPACE PANIC, CRAZY CLIMBER, HUNGRY MAN외 New 50ITEMS

"3개월이면 투자액을 건질 수 있는 수익성의 사업입니다"

본사는 미국 아폴로우주계획에 의해 고도로 발달된 전자기술의 산물인 I.C.(직접회로)와 DIGITAL(디지탈)기술로 T.V. 화면을 이용한 새로운 발상의 과학적인 T.V. 오락기구를 개발하고 이곳 캐나다에도 수출을 단행, 신뢰받는 기계, 철저한 아프터 서비스로 여러분의 가게나 음식점등 새로운 비지니스로 자신있게 권해드릴 수 있읍니다. 또한 이 기계는 마이크로 컴퓨터로 엄격한 관리하에 생산되었기 때문에 정확하며 간단한 조작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현재「도꾜」를 중심으로 약12만대가 보급되고 있는 수익성의 사업입니다.

— YU JIN TRADES CORPORATIN —

M & J INTERNATIONAL
1230 SHEPPARD AVE. W.
#15, DOWNSVIEW, ONT. M3K 1Z9
☎ : 630-0313 대 표 : 양 은 택

☎ : DAY : 630-0313
NIGHT : 429-1057

후 원 : YU JIN TRADES CORPORATION (KOREA)
G. G. I (CORPORATION(JAPAN)

여자排球 세계大會 2連覇

強豪 페루에 逆轉勝 3-1

초반에苦戰…끈질긴수비·트릭으로 主導權

멕시코 주니어大會

【멕시코시티=聯合】여자배구가 한국구기사상 처음으로 세계대회 2連覇의 위업을 달성했다. 한국여자청소년 배구팀은 26일(한국시간) 멕시코시티 산델라·바레라체육관에서 폐막된 제2회 세계여자 주니어배구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강호 페루와 재격돌, 2시간20분간에 걸친 접전끝에 3-1로 역전승, 지난77년 브라질의 제1회대회에 이어 우승, 2번째 정상고지에 올라섰다.

한국은 25일의 준결승에서 朴志國씨가 지도하는 멕시코에 3세트 통틀어 7점만을 허용하고 손쉽게 승리했었다. 이로써 이번대회에는 3위의 日本을 제외한 준우승 페루(朴萬福), 4위팀 멕시코 등 한국인이 지도하는 3개팀이 4강에 들었다.

한국은 이날 결승전서 준결승리그서 맞붙어 전력을 노출당했던 페루에 초반한때 고전, 크게 당황했다. 장신의 페루는 강서브로 한국팀의 콤비네이션을 파괴하고 위력있는 좌우강타와 블로킹으로 한국을 위협, 첫세트를 9점차로 선취했다.

그러나 한국은 첫세트 이후 전력을 재정비, 끈질긴 수비와 눈부신 트릭플레이로 경기의 주도권을 되찾기시작했다. 2세트에서 주장 李恩敬, 金貞順등 장신들이 페루의 왼손잡이 주공 세실리아(179㎝)의 공격을 블로킹으로 차단하고 朴美姬·金允子의 속공과 보조세터 黃淵順의 날카로운 공격이 주효, 15-11로 승리, 타이세트를 만들었다.

제3세트는 다섯번의 듀스가 거듭될만큼 혼전이었다. 李恩敬의 레프트 오픈공격이 불을 뿜고 朴美姬·金貞順등이 黃淵順이 잘게 띄우는 볼을 속공으로 계속연결, 15-13으로 세트를 끝내고 한숨을 돌렸다.

◇최종일 결승전적
한국 3 (15-8 15-13 15-11 6-15) 1 페루

◇준결승전적
한국 3 (15-2 15-3 15-2) 0 멕시코
7 일본

韓國의 崔貞淑이 25일 멕시코시티에서 벌어진 세계여자및 청소년배구결승전 對페루경기에서 마지막 강스파이크로 승리를 따내고 있다. 韓國은 이날경기에서 페루를 3대1 꺾었다. 【멕시코시티25日UPI電送=聯合】

해설 콤비플레이로 長身 파워막아 中高때 勝負위주훈련 고쳐야

청소년 여자배구의 개가는 『국내구기종목중 세계 상위랭킹에 접근할수 있는 것은 그나마 배구』라는 사실을 재인식시켜 준 계기가 됐다.

그러나 이번 대회서의 결과만을 가지고 이들이 국가대표급으로 성장할 몇년후, 한국여자배구가 세계정상을 차지할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주니어대회서는 신장과 파워의 열세를 정교한 콤비플레이로 커버할수 있지만 국가대표팀끼리의 경쟁서는 그렇지 못하다.

한국은 주니어 대회서 비록 2連覇는 했지만 정공법인 오픈공격력은 다른팀에 비해 많이 뒤졌다. 랠리가 거듭될때 결정을 내주는 거포가 거의 없었다.

국내 어느 종목이나 비슷한 사정이지만 우리나라 배구선수들은 주니어 단계에서 이미 꽃이피고 열매가 맺는다. 주니어에서 시니어로 자라면서 완숙해지고 파워가 붙어야 하는것이 정도이나 우리의 경우 기량은 제자리 음이고 부상만 점점 더해 간다. 77년 세계대회서 맹활약을 보여 기대를 걸었던 대부분의 선수들이 지금은 국가대표선수들이지만 모두 환자선수로 둔변했다.

이같은 폐습을 없애기 위해서는 중·고교선수들에게 과도한 연습량과 승부만을 위한 훈련방식을 이제부터라도 지양해야한다. 84년 LA올림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주니어 선수들의 신체관리를 철저히 해야할것이며 88년 올림픽에 대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거포 양성에 주력해야 할것이다. 【金】

아시아궁도大會 女子部60·70m서 1·2·3位

제2회 아시아궁도대회(싱가포르)에 참가중인 韓國선수단은 25일 여자60m와 70m개인경기에서 모두 1·2·3위를 차지했다고 선수단이 협회에 알려왔다.

印度·印尼·말레이시아·싱가포르·필리핀등 6개국 46명의 선수가 참가한 이대회에서 韓國선수단은 여자60m와 70m개인경기에서 朴英淑이 3백16점과 2백96점으로 모두 금메달을, 2위는 金文圭가 3백15점과 2백89점으로, 그리고 3위는 金珍浩가 3백14점과 2백89점으로 각각 차지했다.

또한 남자70m 개인경기서 李元龍이 3백7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전적
▲여자60m개인=①朴英淑 3백16점 ②金文圭 3백15점 ③金珍浩 3백14점
▲여자70m개인=①朴英淑 2백96점 ②金文圭 2백89점 ③金珍浩 2백89점 (시리즈 경기방법차)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畵

"하루종일 사장에게서 속시원한 대답을 얻어낼수 없었어" "사장은 너무 우유부단해!" "사람들이 확고한 입장을 취하지 못할때 당신은 괴롭지않아?" "글쎄요, 그렇기도 하고 안그렇기도 하고"

김인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나의 이력서 윤치영 ⑰

<題字·尹致暎>

52년봄 憲政의 倒壞를 예고하는 검은 그림자가 臨都 釜山에 점점짙게 깔려왔다. 정부에서도 국회주변에서도 스산한 바람이 가득 차있는 느낌이었다.

3월하순 院外自由黨이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통령直選制·兩院制등 12개항목의 對정부건의안을 의결한뒤 얼마안돼 국회에서는 1백20여명의 이름으로 內閣책임제改憲案이 제출됐다. 그러자 院外自由黨등 전국18개단체에서 內閣책임제개헌안반대투쟁 共同委를 구성했다.

정부에서는 張勉총리가 사임하고 뒤를 이어 張澤相이 국무총리가 됐다. 張澤相의 등장은 그 한달뒤에 있은 李範奭의 내무장관 취임과 함께 直選制 改憲을 위한 중대하고 의미심장한 布石이었다.

4월은 정치파동의 前哨戰이었다. 5월로 접어들자 暴風과 폭풍을 갈은 먹구름이 닥치기시작했다.

정부가 제4차改憲案을 국회에 제출한 직후 院內自由黨이 분열을 일으켜 「三友莊派」라 불리는 合同派가 院外自由黨에 동조해, 直選制개헌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러더니 自由黨三友莊派와 民友會派의 의원 40여명이 新羅會를 구성했다. 그新羅會의 總帥가 滄浪 張澤相. 張澤相은 李 대통령의 再選을 보장하는 대통령직선제를 主眼으로하고 野黨을 쓰다듬는식의 지극히 현시적인 내각책임제를 혼합한 改憲案을 추진하려는 強攻의 政略을세웠다.

5·26 政治波動

改憲案否決되자 「民意」빙자 暴力난무 議員도 집단連行 11명구속…國會流會

당시 나는 정부와 국회의 틈바구니에서 몹시 괴로운 입장이었다. 나는 안정된 정부, 특히 혼란기의 救國을 위해서는 李 대통령이 再選돼야한다는 생각이었다. 나와 李박사와의 오랜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救國을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생각했다. 따라서 내각책임제아닌 대통령직선제의 改憲을 지지했다. 그러나 強壓에 의한 改憲에는 절대 반대였고 民國黨을 중심으로한 인물들의 政略에도 반대였다. 나는 自由黨창당에도 당초 반대, 참여하지 않았다. 섣부른 派爭이 생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李 대통령을 옹호하는 입장이면서도 不法과 강압적인 수단방법을 가리지않으려는 그들의 계획에는 반대했다.

이것은 그뒤 李박사가 4·19로下野하기까지 긴세월 나자신이 고립되고 모략에 의해 景武臺에서 격리되는 결과의 시초가 된다. 정부의 直選制개헌안을 국회가 否決하자 5월중순께 정체불명의 단체들이 튀어나오더니 국회해산을 요구하는 데모를 하기 시작했다. 듣기도 험악한 白骨團, 땃벌떼와 民族自決團이란 단체였다. 그들은 국회를 포위하고 연일 국회해산을 외쳤다. 당시의 모습이란 실로 가관이었다. 땃벌떼, 白骨團등은 국회앞에서 낮엔 굶고 드러누워 위협의 시위를 하고 밤엔 곰탕등을 실컷먹어대고 아우성이었다.

李範奭이 내무장관이 된뒤엔 더욱 기승을 부렸다. 소위 直選制를 반대한 「反民意」국회의원의 소환을 외치는 소리가 요란했고 불법단체의 비라가 釜山거리를 휩쓸었다. 당시 民意동원본부라는 게 釜山 凡一洞의 朝鮮紡織내에 있었다. 白骨團이란 바로 조선방직사장인 姜一邁가 지휘하는 단체였고 땃벌떼는 族靑系에서 나온 단체였다.

5월25일엔 慶南과 全南北23개 市·郡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徐珉濠의원사건도 이때쯤 일어났다. 다음날엔 사상유례없는 국회의원 집단검거가 자행됐다. 국제공산당의 비밀정치공작에 관련됐다는 혐의로 鄭憲柱, 李錫基, 梁炳日, 張洪琰의원등이 구속되더니 다음날인 5월26일엔 헌병과 CIC대원들이 48명이 탄 국회의원의 통근버스를 불법검색하고 견인차로 끌어갔다. 버스에 타고있던 徐範錫, 任興淳, 金意俊, 李容卨의원등이 또 구속됐다. 그뒤에도 郭尙勳, 權仲敦의원이 구속돼 구속의원은 모두 11명이 됐다.

이처럼 공포분위기가 조성되니 국회의원들이 피신하고 그결과 국회는 成員이 안돼 流會되고 말았다.

이때의 사태를 5·26정치파동, 또는 釜山政治波動이라고 했다.

나는 우리나라헌정에 대통령중심제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었으나 폭력과 공갈과 협박행위가 亂舞하는 이런 난장판을 보고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民意」란 이름으로 白晝에 테러를 감행하고 정치에 폭력을 휘두른 것은 마땅히 규탄받아야한다.

釜山정치파동은 망신스럽게도 국제적으로 飛火됐다. 유엔 한국부흥위원단은 釜山지구 계엄해제와 구속의원의 석방을 요청하고 한국 정부가 헌법과 기본법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될때 위원단이 英韓의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아이젠하워 美 대통령이 비난 聲明을 발표하고 뒤따라 영국, 濠洲, 프랑스도 동조하고 나섰다.

망신살이 뻗쳤다고 하던가. 남의 나라를 비극의 늪에서 구원해 주겠다고 派兵을 한 우방들의 비난을 과연 內政의 간섭으로 돌릴수가 있겠는가. 妄發愚行을 저지른 것은 행정부나 국회나 마찬가지였다.

政略의 人質로 국회의원을 납치하다니,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일어날수 없는 일이다. 5·26정치파동의 배후엔 또 정체불명의 돈이 마구 뿌려졌으니 이는 그후 악순환을 되풀이한 정치부패와 정치오염의 元祖라고 할수있다.

◇3府要人의 단란했던시절。(左로부터 金炳魯대법원장, 李始榮부통령, 李承晩대통령, 申翼熙국회의장, 張勉총리) 그러나 국민방위군사건과 정치파동을 전후해 李始榮부통령, 張勉총리등이 사임하는등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한국 濠에패배 4位 주니어하키 豫選戰

【홍콩25日=聯合】한국남자주니어하키대표팀은 25일 홍콩 킹스파크하키장에서 속개된 제2회 월드컵주니어하키선수권대회 아시아-오세아니아州예선 최종일 3-4위전에서 濠洲에 7-0으로 패배, 4위에 머물고 말았다.

한편 1、2위전에서는 뉴질랜드가 印度를 2-1로 꺾고 우승, 내년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결승전진출권을 획득했다.

◇최종일전적
▲1·2위전 뉴질랜드 2-1 印度
▲3·4위전 濠洲 7-0 한국
▲하위전 日本 2-0 싱가포르 홍콩 2-1 오만

吳永世 타이틀방어 比네네준에 KO勝 OPBF라이트級

프로복싱 동양 태평양권투연맹(OPBF)주니어라이트급 챔피언 吳永世는 25일 밤 문화체육관에서 벌어진 타이틀 3차 방어전서 필리핀의 도전자 네네·준을 10회 2분33초만에 KO로물리쳤다.

吳는 이날의 승리로 10연승(6KO)을 기록했다. 네네·준은 10회서 스트레이트 펀치를 연타당해 스스로 경기를 포기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流星의 賦 <218>

李炳注 作 李友範 畵

秋風何處至 ⑯

떠난지 사흘 후에 배석환이 돌아왔다. 왕복 6백리가 넘는 길을 걸은 것이다. 하루에 2백리를 걸었다는 셈이다.

『장하우이, 배군』

계남이 노고를 치하했다. 그런데 배석환에겐 피로의 기색이라곤 없었다. 잠깐 산책을 하고 왔다는 그런 기분이다.

『약간 덥기는 합데요만』

하고 우물가에서 세수를 하며 싱긋 웃었다. 음력 5월인 것이다. 덥지 않을 까닭이 없다. 계남이 용돈을 후하게 주어

『오늘밤은 쉬어서 기생방에나 가놀란』

고 말하고 이영의 편지를 봤다.

『홍공의 주도하고 면밀한 탐사에 먼저 경의를 표한다. 사고팔변할것 없이 곧 주상께 아뢰 작정이다. 흉청처하게 살피게. 조정에선 이미 여립에 관한 풍문이 들어와 있는데도 모두들 쉬쉬하며 함구하고 있는 꼴이라네. 일이 결정되면 포토사(捕討使)를 즉시 파견할 것인즉 홍공은 그들에게 일지(一指)도 대지않게 조심하라. 홍공이 전면(前面)에 섰다고 하면 율곡(栗谷)과 홍공파의 관계를 들어 무슨 말을 어떻게 꾸며 주상(主上)의 명(明)을 흐리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말해두는 것이다. 만일 노자에 부족이 있거든 전주감영으로 찾아가라. 전라감사에게 내 매부(妹夫)가 유탐차 그곳에 가 있는데 혹시 곤궁을 당해 찾아갈지 모른다고 하고 그럴경우 넉넉하게 노자를 주면 후에 서울에서 갚겠노라고 서장을 보내 놓았으니 안심하고 찾아가도 된다. 그러나 자네의 소임은 밝히지 말아야 하네…』

편지를 읽고 계남이 흡족한 마음으로 웃었다. 이영의 신중함과 따뜻한 정이 흐뭇했던 것이다.

계남은 오래지 않아 여립의 자금 출처를 알았다. 여립은 전주, 금구, 태인등 여러 고을의 부자, 무사들과 공천(公賤), 사천(私賤) 가릴 것 없이 계(契)를 조직하고 계 이름을 대동계(大同契)라고 했다. 이게 또한 전주근처의 관원들도 참가하고 있었다. 그런 만큼 그 계금으로 옮고 있는 액수가 엄청나게 컸고 그 일부가 비황(備荒)의 명목으로 여립의 관리하에 있었다.

여립의 자원은 또 있었다. 점술(占術)과 주술(呪術)에 통해있는 것을 빙자하여 여립은 직접 자기가 출동하지 않고 앉아서 중들과 무당들을 통해 적잖은 돈을 긁어모으고 있었다. 무남(無男)의 부잣집안에 아들을 낳게하여 준다는 약속으로 금은보화를 가증 받고, 계룡산에서 진정이 난다는, 진정은 바로 「정읍삼녀성도다」(鄭邑三女成道)즉 정여립이란 풍문을 은근히 퍼뜨려 이 세상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쌓인 부류들이 적잖은 봉납(奉納)을 하도록 꾀를 부리고 있었던 것이다. 「정여립이란 자야말로 혹세무민(惑世誣民)의 도다」 계남이 이렇게 단정했다.

어느날 밤엔 문정봉이 여립의 별장이 있는 금구에서 배회하다가 어떤 중을 사로잡았다. 갈도를 가장한 행인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따리속에서 천냥이 나타났다. 은천냥을 넣어지고 있는 봉한 상자의 겉엔 「삼청량제봉납(三淸量齊奉納)」이라고 쓰여 있었다. 문정봉이 이 은덩어리가 어디서 나왔느냐고 추궁했지만 중은 끝내 말하지 않았다.

종교서관
535-1920
●기독교및 일반서적
●성가및 설교테이프
●각종선물 용품, 백과사전(월드북)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714 BLOOR ST. W.

교 회 안 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 : 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3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 : 30 오후 2 : 00 영어설교 오후 1 : 00 금요저녁 9 : 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고신장로교회	최사철	오후예배 1 : 00 성경공부 2 : 30	148 Thornridge Dr Thornhill	241-4546
대한교회	강근환	주일오후 1 : 30	3819 Bloor St.W.	741-5411
순복음교회	이필주	주일오후 2 : 00 금요기도회8 : 00	1 King St. Weston	681-7162 247-9577
동부한인장로	홍순관	대예배 오전11시 영어예배 12 : 30분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 : 30 주일낮 12 : 00 주일오후 2 : 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장희선	주일낮 11시 주일찬양예배7시 수요예배 8시 주일새벽기도회6시	135 Briscoe st. E.	686-6302 전화선교 439-6331
런던한인교회	신용규	주일대예배11 : 00 주일저녁예배7 : 30 금요기도 밤10시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성도교회	김용진, 정춘수	주일오후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 : 30 성경공부 2 : 40 토요기도 밤7시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 7 : 00 주일오후 1시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장로	김경진	주일오후 1 : 30 금요오후 7 : 00	7 Gretna Ave. (Victoria Pk. & Lawrence)	281-5706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수요새벽5시30분 중고등 영어 오후1시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새한장로교회	귀상호	주일오후 2 : 00 토요오전 7 : 00	105 Wilson Ave.	482-4577 633-3132
서머나감리교회	박준하	주일오후 2 : 00 수요예배 7 : 30	675 Sheppard Av.E.	752-9727 752-9860
선교교회	안상엽	주일 낮 1 : 00 저녁 7 : 00	1 Greenland Rd. (Donm ills)	444-8002 444-4011 (기쁜소리)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토요집회 오후2시 평일기도 오후2시 또는 수시	800 Lawlor Ave. Tor.	698-5363
평신도복음선교회	선교회	예배 주일오후 2 : 00	2501 Warden Ave.	298-9031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오후 1 : 30 4 : 00 수요오후 7 : 30	65 Mayall Ave. Downsview	977-5202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 8 : 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 : 00	1272 Weston Rd.	242-4964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 : 30 수요저녁 7 : 30 금요저녁10 : 30	126 O'conner Dr. at Pape Ave.	423-8400 423-9880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 : 00 금요오후 8 : 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조창환	수요저녁7 : 30 일요오후2 : 30	63 Dunblaine	488-4141
토론토한인웨슬레감리교회	여용순	주일오후 1 : 30 금요예배 7 : 30	2385 Warden Ave.	444-8[illegible]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용출	주일오후 1 : 30 금요오후 7 : 30	963 Pharmacy Ave.	755-9766 755-1528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 : 30 토요오전 9 : 30 11 : 00	355 Finch Ave. W.	630-4284
중앙장로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 : 00 성경공부 2 : 20 금요오후 8 : 00	502 Bathurst	전화설교 961-8361
천주교회	고종옥	주일오후 1 : 00 토요오후 5 : 30	83 Power St. Tor.	863-0415
침례교회	홍신웅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8 : 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 : 00 주일오후 4 : 30 금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281-7772 245-1687
키치너·워터루 한인교회		주일오후1 : 30	54 Queen St.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 : 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 : 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교회	유재신	주일오전11 : 00 낮12 : 30	353 Sherbourne St.	922-3863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 : 00 수요오후 7 : 30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나룡	성경공부 2 : 30 예배 3 : 00 주일학교 3 : 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집이 구원을 얻으리라